

"풀어주길 잘했네"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제3283호 www.metroseoul.co.kr

건설사發 한국경제 흉조

경기선행지수 역할 건설사 주가 5년 來 최악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금융위기 때보다 나빠

주요 건설사의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경기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지만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도 해외발(發) 불확실성, 부실회계 등 잠재위험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건설사들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마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귀하자 '제2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대 건설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6.37%(3100원) 내린 4만5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4만4700원까지 떨어져 신저가를 갈아 치웠다. 삼성물산 주가가 종가기준 4만8000원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12월11일(4만7900원) 이후 5년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GS건설도 전날보다 3.47%(800원) 떨어진 2만2250원에 장을 마쳤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1.8%(120원) 내린 6550원, 현대건설은 1.64%(550원) 하락한 3만3050원, 대림산업은 0.46%(300원) 떨어진 6만5100원으로 나란히 약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혹은 더 나빠

이들 건설사 주가하락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를 방불케 한다.

금융위기 이후 삼성물산은 8만원 이상 호가하던 주가를 반납하고 2만선까지 곤두박질쳤다. 2010년 하반기에 가서야 겨우 6만원선을 회복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며 주주들에게 '찬성표'를 구했지만 주주총회 이후 오히려 주가는 34.19% 역주행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다. 2008년 7만원을 웃돌던 현대건설 주가는 그 해 10월 절반 수준인 3만7000선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더 떨어져 3만3000원대마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

다른 건설사들 사정도 좋지 않다. GS건설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4만1000원 아래로 떨어진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2만원대로 추락해 1998년 수준과 맞먹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도 2005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현대건설 주가 추이. 19일 종가 3만3050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여파가 정점에 달한 2008~2010년 당시 보다 낮은 가격이다./자료=한국거래소

◆건설사 잠재부실 산재…체질개선 시급

금융투자업계에는 건설업계가 잠재 부실을 떨어내는 대규모 '빅배스(big bath)'에도 불구하고 해외발 악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의 해외수주는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한 328억 달러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12.4% 줄어든 578억 달러가 예상된다"며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지역 발주가 급감한 것이 해외수주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건설사들의 밀어내기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 향후 미분양은 자연스럽게 더 증가할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쇠퇴하기가 쉬운 산업인 건설업이야 말로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위기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대내외 체질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민형한국건설산업연구소연구원은 ▲양적확대에 치중한 무리한 사업 확장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얽힌 거래의 불투명성 등을 건설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고 "수익을 건설업에 투자하지 않고 땅을 사는 등 다른 쪽에 눈을 돌린 것도 유동성 문제를 유발,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이어져 회계 투명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주식시장 카오스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이나 쇼크'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하며 1930선으로 주저앉았다. 코스닥도 4% 넘게 급락하며 패닉 장세를 보였다.

1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88포인트(0.86%) 내린 1939.38로 마감했다.

지수는 1.70포인트(0.09%) 내린 1954.56으로 시작해 장중 한때는 1915선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이날 지수 하락은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충격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증시 급락이 경기 악화로 인식되며 투자심리를 짓누른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이 재부각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외국인은 268억원 어치를 팔며 10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개인도 1864억원 어치를 팔았다. 반면 기관만이 홀로 168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했다.



비금속광물(-5.65%), 의료정밀(-4.84%), 섬유의복(-4.77%), 의약품(-4.16%), 증권(-3.84%), 음식료품(-3.11%)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5.85%), 제일모직(-5.30%), 삼성SDS(-4.55%), 아모레퍼시픽(-4.42%) 등이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주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기아차(3.66%), SK(3.39%), 삼성전자(2.03%) 등은 올라섰다.

특히 이날 코스닥의 낙폭이 컸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9.25포인트(4.18%) 내린 670.55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6% 넘게 폭락한 652.12까지 밀렸다.

기관은 1612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46억원, 245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하락한 종목은 956개에 달한 반면 상승한 종목은 상한가(오리엔탈정공) 1개를 포함에 112개에 불과했다

이날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던 것은 최근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있었던 데다 2분기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다수가 크게 떨어졌다.

바이로메드(-9.82%), 동서(-5.31%), 셀트리온(-5.28%), 파라다이스(-4.81%), 컴투스(-4.57%), 이오테크닉스(-4.27%), 다음카카오(-3.73%) 등이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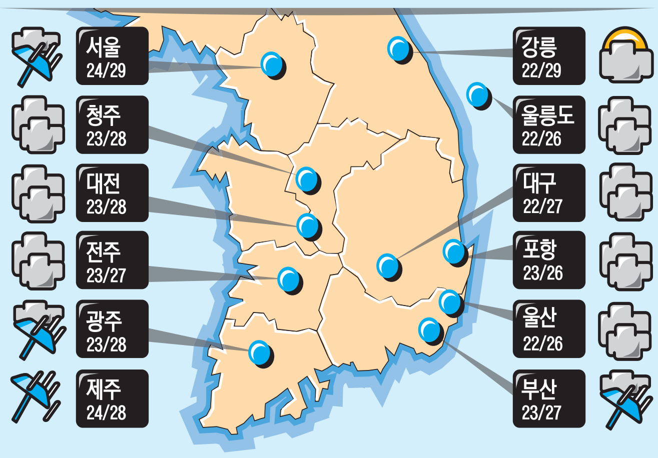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600선 초반까지 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날씨

8/20 목 일출시각 05:51 일몰시각 19: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 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유통

▲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 이틀째인 19일에도 추모하는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상주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 회장을 대신해 고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경영고문을 비롯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이 빈소를 지켰다.

▲ **롯데그룹이** 이달 말까지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 계획을 밝히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호텔롯데는 19일 "국내외 10여개 증권사에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텔롯데를 시작으로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과 롯데리아 등 롯데 계열사 전반으로 IPO가 확대될 전망이다.

▲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은 1993년에 낸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아버지 호암과의 애증의 삶을 살았던 사연을 고백한다. 삼성은 고인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7년동안 정열을 불태운 곳이다. 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삼성에서 나오게 됐을까. 세간엔 호암이 맹희씨가 '청와대에 투서'를 했다고 믿었고 이후 호암과 사이가 멀어지며 삼성을 떠나게 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인은 자서전에서 본인이 투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수 차례 강조한다.

국제

▲  초대형 폭발사고로 사망 최소 114명, 실종 57명, 부상 700여명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중국 **톈진시**에 맹독성 물질을 함유한 비가 내리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 **중국 증시**가 또다시 큰폭으로 하락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1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현재 전날보다 3.12%(116.76 포인트) 하락한 3,631.40으로 오전장을 마쳤다.

▲ 한국투자공사가(KIC)가 삼성 합병이 끝난 뒤 삼성에 맞섰던 **엘리엇**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 태국 **방콕 도심 테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조직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 '여성 비아그라' **애디**(Addyi·화학명 플리반세린)의 시판이 미국에서 승인되자 뒷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경제·산업

▲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 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290조원의 통합 하나·외환은행이 내달 1일 출범한다.

▲ **두산**의 주가가 주당 4500원의 현금배당 소식과 주력 자회사들의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날개를 달았다.

▲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와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 25년을 맞아 역대 문안을 엮은 기념집 '광화문에서 읽다 느끼다 거닐다'를 발간했다.

▲ 최근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은 앱카드 등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부터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뱅킹서비스와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등 **'총성없는 핀테크 전쟁'**이 시작됐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경영에 정성을 쏟고 있다. 최 회장 복귀 후 SK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가 20일 국내 판매에 들어간다.

▲ **삼성페이**가 20일 정식으로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도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든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용 스마트인증' 서비스를 공동 출시했다.

▲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항공권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기준 장관 중국인양팀 격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세월호 침몰현장에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인양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소속 1만1706t 크레인 작업선 다리(大力)호를 방문, 상하이샐비지 선원들과 잠수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사회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한 국내 개인용 컴퓨터 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내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통해 매출이익 환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의 90%를 면세점에 의존하는 호텔롯데에게는 직격타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부지에 여전히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시에 문체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 대북 방송용 확성기 타격을 위한 **북한군**의 훈련 모습이 관측됐다. 북한군의 지뢰도발이 남북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의 교체지수 평가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 40억원대의 기성회비를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교수와 교직원에게 지급한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대법원이 이른바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경찰의 **차벽 설치**가 일반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닐 경우 잘못된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어섰다.

▲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경찰관에 잇따라 욕설을 한 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톈진에 '독극물 비'… 타는 듯한 통증 호소

빗물에 하얀거품 둥둥
주민 제보에도 "안전해"
시민들 정부불신 팽배



중국 톈진 빈하이신구 폭발지점에 유독물질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웅덩이에 가득하다. 인근 톈진 시민들은 유독물질 공포에 떨고 있다. 작은 사진은 톈진 시내에 내린 빗물에서 거품이 가득 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트위터

유독 화학물질이 가득했던 창고가 폭발하면서 대참사가 발생한 중국 톈진에 독극물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비가 내렸다.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중국 환경당국은 독극물 비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 환경부는 유독물질이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열도까지 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웃 일본에서는 나온 상태다.

19일(이하 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톈진 빈하이신구 내 폭발지점 인근의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취재진들 사이에서 전날 내린 비를 맞고 고통스런 경험을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비를 맞고 취재에 나선 한 특파원은 "입술과 팔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구조작업을 돕던 한 자원봉사자는 중국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비를 맞은 팔의 피부가 붉게 변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는 글을 올렸다. 통증이나 피부의 증상은 물로 씻으면 완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제보들도 비슷한 내용이다.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를 맞은 모든 사람이 통증을 느끼거나 피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비를 맞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취재진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폭발 당시 유독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웨이보 등 온라인 상에는 도로위로 흐르는 빗물 표면에 하얀 거품이 둥둥 떠 있는 사진도 올라오고 있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톈진시 환경당국은 대기와 물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어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톈진시를 비롯해 중국 정부는 폭발 사고 이후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독극물 공포를 전하는 중국 누리꾼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단속하기도 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영기업이 법을 위반해 도심 한가운데 주민들도 모르게 위험한 화학물질 보관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불법 화학물질 창고가 톈진 도심에 2곳이 더 있다고 보도했다. 모두 주택가와 상업시설 등이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폭발이 일어난 위험물 창고도 주변 1km 이내에 주택가와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심지어 지하철역 출입구는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 창고에는 금속나트륨,시안화나트륨,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등 40개 종류의 화학물질 3000t 정도가 보관돼 있었다. 정확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폭발과 함께 보관기록이 소실돼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독극물 중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발 당시 기화해 대기로 올라간 독극물이 문제다. 대기에 머물다가 비를 타고 내려오면 독극물 비가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시안화나트륨은 가장 요주의 물질이다. 수분과 접촉하거나 알카리화하면 신경가스를 생성할 수 있다. 실제 중국 중앙TV는 소방당국을 인용해 맹독성의 신경가스와 청산가스 성분이 현장의 공기에서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널뛰기 中 증시… 당국은 증권사 조사로 대응

해외선 '정책 실패' 비판

당국의 개입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증시가 전날에 이어 19일 오전에도 폭락했다가 오후에 반등했다. 해외에서는 이번 폭락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의 갑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가 부른 자충수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장외 신용융자 거래'가 원인이라며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45.95포인트(1.23%) 상승한 3794.11로 장을 마쳤다. 상하이지수는 전날보다 2.70% 하락한 3646.80으로 개장해 오전에 5% 이상 떨어지며 아시아증시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증시 폭락의 주범으로 중국 인민은행을 지목했다.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해 상당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이 임박하면서 위협을 느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진단과 대응은 전혀 달랐다.

증시 전문인 중국 정취안바오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시 폭락의 주범으로 '장외 신용융자 거래'를 지목하고 주식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 두 곳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받게 된 회사는 헝성전자와 퉁화순이다. 중국 증시는 약 5000억 위안 규모의 장외 융자거래 금액 중 4000억 위안이 헝성전자를 통해, 60억 위안은 퉁화순 시스템을 통해 , 360억 위안은 밍챵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병형 기자

한국투자공사, 엘리엇에 한국 철수 요구

WSJ "엘리엇 반응 불확실"

한국투자공사가(KIC)가 삼성합병이 끝난 뒤 삼성에 맞섰던 엘리엇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이 요구가 한국투자공사법 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도 함께 전했다. 해당 조항은 KIC가 오직 한국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KIC가 운용하는 전체 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로 이 가운데 26억 달러 정도가 20여개 헤지펀드에 투자돼 있다. 엘리엇에는 2010년 10월부터 총 50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재 4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엘리엇이 KIC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엘리엇 측은 확인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에 맞섰지만 패배했다. 당시 삼성은 엘리엇을 먹튀 해외자본으로 공격하며 주주들의 애국심에 호소했다. 삼성 승리의 배경이다.

당시 KIC는 엘리엇이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병형 기자

"애슐리매디슨, 가짜 여성회원으로 사기"

해커, 10GB 자료 공개
실사용자 90~95% 男
"고소해 배상 요구해라"

대표적인 불륜 알선 사이트인 애슐리매디슨이 가짜 여성회원 프로필을 만들어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이 사이트 운영사인 아비드 라이프 미디어(ALM)를 해킹했던 해커들이 약 1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회원정보를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터넷 전문매체인 와이어드에 따르면 임팩트팀이란 해커들은 자신들이 해킹한 애슐리매디슨과 그 자매 사이트인 이스태블리쉬드멘(부자 남성과 여대생 만남 알선)의 회원정보를 다크웹(해커들이 이용하는 폐쇄적 인터넷 공간)을 통해 공개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임팩트팀은 성명에서 "ALM 회원들 가운데 수 천명 여성들은 가짜였다. 실제 사용자들의 90~95%가 남성"이라며 "(공개된 회원정보에서) 당신의 이름을 찾았다면 ALM이 당신을 좌절시켰고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ALM을 고소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공개된 회원정보에는 회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 결제 내역,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상세히 나와있다. 이와 관련해 와이어드는 "애슐리매디슨의 회원에 가입하는 데 이메일 인증이 필요 없다. 임팩트팀이 공개한 이메일 주소들이 실제 사이트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팩트팀은 지난달 해킹 사실을 알리면서 애슐리매디슨과 이스태블리쉬드멘을 즉각 폐쇄하지 않으면 회원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ALM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남성회원 2명의 정보를 본보기로 공개했다. 하지만 ALM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았다.

이번 10GB 분량의 정보는 1차 공개다. 임팩트팀은 "시간이 다 됐다. ALM은 애슐리 매디슨을 폐쇄하지 못했다"며 "ALM과 회원들의 사기, 기만, 어리석음을 이미 설명했지만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국정원 해킹 시도 IP 3개 추가 발견"

안철수 유출자료 분석
2013년 KT망 사용자 대상
해킹프로그램 설치 시도
PC→스마트폰 이동 주장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로 발견된 국정원 해킹 KT IP와 로그파일 등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한 국내 개인용 컴퓨터 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망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롭게 밝혀낸 IP 3개는 400GB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지금까지 어떤 언론이나 단체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PC의 해킹을 시도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 2차 고발장에 명시한 SKT IP 5개와 PC IP 2개와는 시기와 주소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내 IP"라며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 의혹을 증폭시킨 SKT IP에 대해 국정원 소유 스마트폰이며 실험용으로 썼던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이날 국정원이 해킹하거나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힌 IP는 △121.160.164.186(2013년 7월 21일) △121.157.18.240(8월 20일) △121.138.144.60(8월 20일) 등 3개다.

안 위원장은 "현재 통신업자들이 로그 기록을 3~6개월가량 보존한다"며 "1, 2차 검찰 고발에 포함된 국정원이 SKT IP 5개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날짜가 올해 5월 19일과 21일, 6월 3일·4일·17일인 만큼 내국인 사찰의 중요한 기록이 이대로 자동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금이라도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압수수색에 나서 해당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진상규명 이전에 위법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의 해킹 시도가 지난 대선 즈음에는 개인용 PC를 대상으로 했다가 이후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2015년에 해킹을 시도한 SKT IP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다른 증거에서도 국정원이 대선기간을 포함한 초기에는 개인용 PC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휴대폰으로 옮겨간 정황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도 많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자료제출만 한다면 주신 백지신탁을 하고 정보위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합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상황에서조차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진실을 덮는 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원이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내 개인용 PC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北 '대북 확성기' 타격 훈련

北 GP 총안구 개방 관측
최전방 포사격 훈련 증가
남북 무력충돌 위험 고조


최윤희 합참의장이 18일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해 우리군의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합참 제공

대북 방송용 확성기 타격을 위한 북한군의 훈련 모습이 관측됐다. 북한군의 지뢰도발이 남북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군 소초(GP)들에서 남쪽을 향한 총안구가 개방된 모습이 자주 관측되고 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타격을 노린 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북한군은 평소 GP 총안구를 닫아두고 있다. 이를 열 경우 우리 군은 사격 준비 신호로 간주한다. 언제든지 고사총을 비롯한 화기를 남쪽으로 발사할 준비를 갖췄다는 신호다.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준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의 최전방 부대 포사격 훈련의 빈도와 강도도 높아졌다. 역시 대북 확성기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지난 15일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무차별적인 타격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을 때도 '조준사격' 위협을 가했다.

최윤희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한의 위협에 즉각 "적이 도발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현재 우리 군은 확성기 주변에 CCTV와 적외선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배치했다. 대북 방송이 없는 지역에도 K-4고속유탄기관총, K-3기관총, 90㎜무반동총을 보강 배치했다.

북한이 확성기에 사격을 가할 경우 즉각 반격할 태세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반격이 뻔한 상황에서 모험을 시도했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면 내부 정치의 측면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호텔롯데 정조준… 면세점 특허료 인상론 제기

김정훈 "정책적 활용" 주장에
與 "정책위의장 개인의견" 진화



김정훈(사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내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통해 매출이익 환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의 90%를 면세점에 의존하는 호텔롯데에게는 직격탄이다. 호텔롯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 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룩한 국가이미지와 외교적 성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노력에 기인하므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액의 0.05%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 약 8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 수준이다. 김 의장은 "면세점의 매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83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셈인데 이 가운데 40억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특허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빚은 롯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롯데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점에서 나고 있다. 그런데 면세점 특허수수료로 내는 액수가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호텔롯데의 매출은 2조1485억원으로 이중 약 90%를 면세점 사업부가 냈다.

이와 관련해 당내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따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다. 김 의장은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추진 여전"

문체부와 유착 의혹 제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부지에 여전히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시에 문체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어제 문체부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대한항공 호텔 건립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어제 발표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신호탄이며 문체부와 특정 재벌의 유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어제 문체부는 대한항공이 호텔을 추진이 중단된 것처럼 브리핑했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호텔만 빠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 건립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볼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여전히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추진하겠다는 복합문화단지는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한옥호텔과 그 규모와 구성에서 대동소이하다"며 "나중에 호텔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정재벌이 100% 자기부담으로 특정시설을 짓는 것을 문체부가 '국정 2기 문화융성 추진계획'의 주요사업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라며 "대한항공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성급하고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오늘 최종 선고

‘한만호 진술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원심 확정되면 구속, 파기환송시 또 재판

2007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부쳐진 지 2년 만에 나오는 확정 선고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의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 인정’ 여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기는 당시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여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전 사장과 연관된 ‘5만 달러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고법은 5만 달러 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단된 지 6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판을 재개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사건이 5년간 이어진 이유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9월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은 한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돼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수입 탄산수 가격 현지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비싸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탄산수가 진열되어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탄산수 가격이 현지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수입 탄산수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 가격이 현지보다 1.7배에서 많게는 7.9배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삼식(68) 경기도 양주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됨에 따라 현시장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그는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거나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 시장이 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연미란 기자

檢 ‘농협 비자금 의혹’ NH개발 압수수색

시설공사비 부풀렸는지 조사

검찰이 농협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NH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NH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20여명을 서울 강동구에 있는 NH개발 사무실로 보내 회계장부, 협력업체 거래내역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NH개발이 협력업체와 짜고 농협 하나로마트·클럽 등 주요 점포의 시설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NH개발의 주요 협력업체인 H건축사무소와 F건축 등의 실소유주인 정모(54·구속)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 21건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의 계약 형태로 NH개발이 발주한 크고 작은 시설공사를 사실상 독점했다.

검찰은 H건축사에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친동생이 고문으로 재직하는 등 정씨와 농협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고 정씨가 횡령한 돈이 농협 수뇌부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연미란 기자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이른바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팽모(45)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부터 2011년까지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고 관계가 꼬인 뒤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에 협조해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연미란 기자



김형식(45) 서울시 의원. /연합뉴스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 사상 첫 1000만건 돌파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어섰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67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0.6%(102만건)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901만건에서 2011년 935만건, 2012년 967만건, 2013년 965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년 사이 18.4% 증가한 셈이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3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구속

증거 은닉 혐의까지… 朴 “우둔한 실수 했다”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를 받은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은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을 선언하며 사실상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일홍 만발한 평창 19일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둔치 일원에 수십만 송이의 백일홍이 만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40억 기성회비 유용’ 방통대 前총장 불구속 기소

40억원대의 기성회비를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교수와 교직원에게 지급한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남철(63)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2011～2012년 교수,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41억2400만원을 기성회비에서 지급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대는 조 전 총장의 전임인 장시원 총장 시절 교원과 교직원의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 수당을 신설해 기성회비에서 지출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촉진장려금 및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장 전 총장 취임 이후 국립대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지한다”고 개정됐다.

그러나 조 전 총장은 문제가 된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 전용을 통해 연구보조비를 늘려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 안은 2011년 초 교무위원회와 기성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통대 교수와 교직원에게 연구보조비 인상분 총 41억24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기성회비 편법 지급이 드러났고, 방통대 학생들은 지난해 조 전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생활 법률

B씨와 사실상 부부의 관계로 5년여를 동거한 A씨.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고 함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B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B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B씨의 임차권 승계가 필요하지만 B씨의 여동생 C씨가 상속권자로 돼 있는 상황. 이 경우 A씨에게 사망한 B씨의 임차권 승계가 가능할까.

우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양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다. A씨와 B씨의 경우,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있지 않을 때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학점은행 학위자, 경찰 특채 제한 ‘차별’

관련규정 개정 권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행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특별채용에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모(23)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경찰행정학 등 과목을 수강하며 학점을 취득해 행정전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특채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하자 올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생 이상인 경우 경찰행정학 전공 과목을 45학점 이수하고 병역 의무를 마치면 특채 응시 자격을 주게 돼 있다.

경찰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교육수준과 강사진 구성 등이 일반대학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응시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시설, 학습과정, 강사자격 등 기준이 대학이나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는지를 평가해 인정하며 인정 후에도 질 관리를 하고 있어 대학·전문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수준 등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련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만취한 검찰 수사관 택시기사·경찰에 욕설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잇따라 욕설을 한 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혐의 등(업무방해·사기·모욕)으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2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자택인 관악구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택시비 1만8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신분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 기자



동해안과 제주도의 바닷가 전망이 돋보이는 금강산리조트!
패밀리형 395만원 부터

창사 25주년을 맞아 휴양별장형 제주금강산 리조트와 대우건설에서 건설한 동해안 고성 해수욕장 앞에 있는 금강산 비치리조트를 완납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있는 실속형 패밀리 회원권을 특별할인된 착한 분양 가격에 분양한다.

제주도의 금강산 리조트는 휴양 별장형 동해안 백사장변에 위치한 금강산 비치리조트는 시끄러운 도시를 탈출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섬의 대표적인 리조트로 사용을 한 많은 회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0년후 반환 받는 회원제와 소유권 이전등기로 100%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는 리조트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더불어 제주리조트와 강원도 고성 그리고 전국 6곳(설악, 도고, 남원, 나주, 경주, 울진) 리조트를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 할수 있으며 필리핀 세부의 골프리조트와 중국 청도의 골프장,제주 골프장 5곳에서 회원자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업체로 분양을 받으면 무기명 회원카드가 발급되어 직원 후생 복리 증진과 접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선착순 20명에게는 무료숙박권 15매와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한다.

분양가는 FAMILY 395만원, SUITE 580만원, DELUXE 980만원에 분양하며, 소유권 등기제는 선착순 50구좌 마감으로 입금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이전등기 할 수 있다.

• 문의 : 02-541-0113
[신청금 100만원 기업은행 244-025348-04029 미봉(주)]

금강산리조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5층 (주)미봉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하라반 전원주택 선착순 20명 모집

주말별장, 주말농장, 전원주택을 동시에 ~!
홍천 : 토지 495㎡ + 하라반 하우스 = 4,950만원
제천 : 토지 830㎡ + 하라반 하우스 = 6,990만원

하라반 스마트 하우스란?

카라반의 이동성! 글램핑의 아름다움! 컨테이너의 튼튼함!

이들의 장점만을 모아서 탄생시킨 분해 조립이 간단한 이동 조립식 하우스로
벽면이 튼튼(0.8T 아연도금강판)하고 평평하여 누구나 시트필름 등을 활용
아름다운 집으로 또는 컨텐츠에 맞게 자유 자재로 꾸밀 수 있는 일명 조립식 아트하우스이다'

약 2시간(소형기준)이면 설치 끝!!
쉽고 간편하게 분해조립!!


중형 5-6인용


대형 7-8인용

상담문의 1833-5110
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신청금 50만원 농협 301-0148-5064-51(주)이노웍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25길 26(양평동2가) 하라반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외골프 무제한 라운딩!

필리핀 마닐라

푸에르토아즐 3박 5일 399,000원
9월 말까지
항공,숙박,식사,그린피,여행자보험 포함

로얄노스우드 3박 5일 499,000원
마스피뇨 호텔 이용
항공,숙박,조/석식,그린피,여행자보험 포함

갈릿라얏 3박 5일 399,000원
10월 1일 까지
항공,숙박,조/석식,그린피,여행자보험 포함

필리핀 세부

메르세데스 3박 5일 599,000원
하루 18홀씩 (18홀 추가 3만원 카트,캐디 포함)
항공,숙박,식사,그린피,카트,캐디,여행자보험 포함

퀸스아일랜드 3박 5일 599,000원
하루 18홀씩 (9홀 추가 3만원 카트,캐디 포함)
항공,숙박,식사,그린피,카트,캐디,여행자보험 포함

클락 뉴아시아 3박 5일 699,000원
하루 18홀씩 (9홀 추가 3만원 카트,캐디 포함)
항공,숙박,조/중식,그린피,여행자보험 포함

중국 청도/연태

캐슬렉스 3박 4일 799,000원
18홀/36홀/36홀/0홀
항공,숙박,식사,그린피,카트,여행자보험 포함

명품 군정 3박 4일 799,000원
0홀/18홀/18홀/18홀
항공,숙박,조/석식,그린피,카트,여행자보험 포함

태국골프 1일

텅야이 18홀 7만원 / 36홀 8만원
숙박,식사,그린피,카트,캐디 포함

우성캐슬 65,000원
숙박,식사,그린피,카트 포함 / 캐디 선택 450B

나라이힐 100,000원
숙박,식사,그린피 포함 / 카트,캐디,팁 900B

미션힐 85,000원
숙박,식사,그린피 포함 / 카트,캐디,팁 900B

워터밀 100,000원
숙박,식사,그린피 포함 / 카트,캐디,팁 550B

라용 75,000원
숙박,식사,그린피,카트 포함 / 캐디,팁 325B

블루사파이어 80,000원
숙박,식사,그린피,카트 포함 / 캐디,팁 325B

니찌꼬 100,000원
숙박,식사,그린피,카트 포함 / 캐디,팁 325B

그린월드 70,000원
숙박,식사,그린피,카트 포함 / 캐디,팁 2만원

보르네오 120,000원
숙박,식사,그린피,카트 포함 / 노캐디

보르네오 쿠닷 80,000원
숙박,식사,그린피,카트 포함 / 노캐디

클락 뉴아시아 골프클럽 회원모집





Royal 3,500만원 (회원 1, 동반 1)
Gold 1,000만원 (회원 1, 동반 1)

회원혜택
그린피 ,골프텔(2인 1실) 무료
조식, 공항 픽업 서비스
단, 동계시즌 준회원 대우

현장 답사 시범 라운딩
3박 5일 55만원
(석식,캐디,카트,픽업비 별도)

IL tour since 199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3번지 751빌딩 717호 http://ilgolf.co.kr
아이엘 골프 투어 24시간 공휴일 상담가능 TEL.02-541-4242

두산株, 현금배당 계획에 주가 '날개'

| 마켓인사이트 |

주당 4500원 배당…7.32%↑
하반기 자회사 실적개선 기대



두산의 '사람이 미래다' TV캠페인 광고.

두산의 주가가 주당 4500원의 현금배당 소식과 주력 자회사들의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날개를 달았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1.54% 떨어진 가운데서도 두산의 주가는 전일 대비 7.32% 오른 9만8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두산은 이날 "올해 연간 실적 전망과 자금계획 등을 감안해 주당 4500원 수준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0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 18일 종가(9만1500원) 기준 시가 배당률은 4.9%다. 최종 배당금은 내년 초 이사회와 정기주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두산은 지난 2008년 1000원 배당을 한 이후로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

두산 관계자는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 의지를 시장에 재확인시키고, 정부의 배당촉진 정책 등에 따른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500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은 지난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자체 사업의 호조 속에 자회사들도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지훈 SK증권 연구원은 "두산이 2분기 전자부문과 산업차량 분야의 수익성 향상으로 실적 호조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두산의 전자부문은 패키지 CCL의 매출비중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이 9.1%로 늘었다"면서 "산업차량은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와 북미 시장의 성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9.2%, 38.5%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두산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도 전자부문의 고수익성 유지와 거래처 다변화가 기대된다"며 "산업차량도 신흥시장에서 판매 확대에 따른 성장 추세의 지속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는 "두산은 추가적으로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과 자사주 소각 등 주가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도 "두산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주력 상장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순손실에도 자체 사업부문의 실적 호조로 지배주주순이익은 309억원 흑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산의 주가는 자회사들의 주가 하락으로 박스권(10만~13만원) 하단에 머물러 있다"며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반기 주력 자회사들의 실적개선, 3.9%로 예상되는 배당수익률을 통한 모멘텀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중상하이증시 '널뛰기' 장세 연출 1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45.95포인트(1.23%) 상승한 3794.11로 장을 마쳤다. 상하이지수는 장중 5% 이상 떨어지며 폭락장을 연출하다 오후 들어 하락세가 멈췄다. 증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이틀 연속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소식에 시장의 투매세가 멈춰지며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통신株, 배당시즌 앞두고 동반 상승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

통신주가 다음달 배당시즌을 앞두고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의 주가는 전날보다 1.38%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유플러스는 전일대비 5.56% 상승한 1만2350원에 마감했다. KT도 전날보다 2.53% 오른 3만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다음달 배당시즌을 맞이해 통신업종의 수급 강화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통신사들이 배당금 증대와 함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투자 매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12개월 최선호주는 LG유플러스로 유지하지만, 다음달에는 SK텔레콤에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LG유플러스는 장기 이익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KT는 기대 배당수익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주들의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에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주가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기업 내부적으로 SK텔레콤은 고정비가 내려가면서 하반기에는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KT와 LG유플러스도 하반기에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신소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장기적으로 통신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SK텔레콤도 전반적으로 지주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민지 기자

하나·외환銀 합병 본인가… 내달 1일 출범

자산 290조 메가뱅크 탄생



자산 290조원의 통합 하나·외환은행이 내달 1일 출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한 당국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9월 1일 통합은행 출범을 앞두고 통합은행장 선임과 조직개편 등 내부 전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합병은 외환은행을 존속회사로 하며 소멸회사는 하나은행이다. 합병 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2.5주당 하나은행 1주다.

통합은행명은 'KEB 하나은행'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24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2~3명의 후보를 압축한 뒤 단독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통합은행장 후보로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하나·외환은행 통합으로 KEB하나은행은 자산규모(2015년 3월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말 기준) 1조2000억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17명에 이르는 메가은행으로 재탄생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과 카드 통합(하나카드 출범)에 이어 은행간 통합도 마무리됨에 따라 24개국 12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리딩투자증권 매각 탄력… 메리츠證 등 8곳 참여

리딩투자증권 매각에 메리츠종금증권 등 8곳이 인수 의사를 보이면서 매각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주관사로 내년초까지 매각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 아프로서비스그룹, AJ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대업스포츠, 케이프 인베스트먼트, 첼시 자산운용, 키스톤·머큐리 컨소시엄, 하이플러스카드 등이 인수전에 참여했다.

리딩투자증권의 신주 발행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일부 대주주 지분도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이날 회사소개서(IM)를 인수 의사를 표한 기업에 보낸 뒤 이달 말까지 실사 기회가 주어질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수 의사를 밝힌 측에서 제시하는 매수 가격과 물량, 인수 뒤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적격 예비후보가 선정된다.

이후 다음달 말 우선 협상자를 선정, 사전협의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 등 고려해 내년 초까지 매각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리딩투자증권의 자본금은 526억3009만원이다.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적은 연결기준 영업손실 19억5902만원, 당기순손실 20억1834만원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불 붙은 핀테크 전쟁… 금융결제시장 새판 짠다

금융권 지각변동②

비대면 채널 강화 등 영업망 재편 속도

금융결제 시장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비롯한 각종 '페이'부터 실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까지 더 간편해진 결제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 간편결제, 총성 없는 전쟁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은 앱카드 등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부터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뱅킹서비스와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총성없는 핀테크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핀테크 기업과 업무를 제휴하고, 각사의 강점을 내세운 영업망을 재편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삼성페이의 출시에 맞춰 이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서비스를 내놓는다. 모바일결제플랫폼인 삼성페이를 활용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핀테크 시장 선두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삼성페이는 애플페이 등 타사 모바일결제 서비스들이 주로 사용하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뿐 아니라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도 탑재, 범용성을 키운 것이 특징이다. 현재 삼성페이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모든 국내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카드사와 연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착용형태의 카드앱 서비스도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은 착용형태의 금융서비스인 'NH워치뱅킹'을 애플워치에도 적용했다. 워치뱅킹 서비스는 구글과 타이젠OS에 이미 도입됐으며, 고객은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또한 애플워치에 카드앱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고객은



'신한 앱카드'와 '신한 Smart 매니저', '올댓쇼핑&월렛' 등 3개 앱을 통한 결제와 조회,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영업망 재편·서비스 다각화

스마트뱅킹의 성장세도 거침없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우체국에 등록된 스마트폰뱅킹 고객(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수는 5752만 명이다. 불과 1년만에 33.8%(1455만명)나 늘어났다.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오간 돈 또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모바일과 PC를 모두 합한 전체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올 2분기 자금이체 금액은 일평균 40조414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7% 늘었다. 이로 인해 영업망 역시 개편됐다. 은행, 증권, 보험업무의 칸막이를 없앤 '복합점포'와 아웃바운드 영업 등으로 변화된 것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의 복합점포에 하나생명을 포함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NH농협금융그룹 역시 지난 3월 복합점포인 '광화문NH농협금융PLUS+센터'에 NH농협생명보험을 입점시켰다.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를 통해 그룹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화 점포를 만들고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올 하반기 영업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33개 지역본부는 고객의 실제 생활권에 기반을 둔 지역별 거점 중심 영업망으로 재편성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1047개 영업점은 점주권 환경과 고객기반에 특화된 영업망 체계로 전환해 고객밀착 영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태블릿 PC 기반 뱅킹 시스템인 '모빌리티플랫폼'(Mobility Platform)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출시 1년만에 5만 건 이상의 고객 신규 거래와 신고 실적을 기록했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상반기 달러 대출 환차손 6000억원

달러강세에 건전성 '빨간불'

올 상반기 달러화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6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국내은행 거주자 외화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본점)의 거주자 외화대출 잔액은 221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225억4000만 달러 보다 1.9% 감소한 규모다.

달러화 대출은 상반기 중 7억6000만 달러 증가했고 엔화대출은 전년말 대비 11억8000만 달러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 1분기 중 정유사의 원유수입결제 목적으로 달러 대출은 늘었다"면서 "엔화 대출은 엔저 기조 지속 등으로 대출 상환과 원화 대출 전환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기간 환차손은 약 40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특히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달러화 대출 차주의 환차손은 6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엔화 대출 차주는 엔화 약세 효과로 2000억원의 환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건전성을 나타내는 외화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외화대출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0.21%p, 0.47%p 상승한 0.85%, 1.86%를 기록했다.

달러화와 엔화대출의 상반기 평균금리는 각각 연 2.63%와 연 2.81%로 전년 말 대비 0.08%p, 0.10%p 하락했다.

한편 금감원은 미국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등으로 외화대출 차주의 이자부담과 환차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반기에도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환차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거주자 외화대출은 상반기 엔약세 기조에 따른 엔화 대출의 상환 증가 등으로 2010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면서 "외화대출 금리는 전년말에 이어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달러화 대출 차주는 달러화 강세 등으로 환차손이 발생했으며, 고정이하 외화대출비율도 다소 상승했다"며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외화대출의 건전성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아란 기자

우리은행, 예·적금 장점 합친 '우리 주거래 예금' 판매

우리은행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예·적금 장점을 결합한 '우리 주거래 예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예금을 신규가입할 때마다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계좌로 예·적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또 정기예금을 적금처럼 자유롭게 추가입금할 수 있으며 만기시 자동 재예치돼 최장 10년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입금 건별로 별도 만기가 적용돼 일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체예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기준 최대 연1.65%며 가입금액에 제한없이 입금건별로 적용된다. 아울러 주거래와 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춰 ▲순신규고객 ▲주거래(대출, 급여/연금계좌, 공과금, 카드 등) 조건 충족시 ▲예금 만기후 재예치시에 우대금리 0.2%p를 제공한다.

고영배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부장은 "지난 3월 은행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계좌이동제 대비'주거래상품패키지'를 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면서 "이번 '우리 주거래 예금'은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주거래고객을 우대해 장기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좌이동제 대비 2차 상품"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광화문글판' 책으로 만난다

교보생명 '광화문에서 읽다 느끼다 거닐다' 발간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 25년을 맞아 역대 문안을 엮은 기념집 '광화문에서 읽다 느끼다 거닐다'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광화문글판은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제안으로 지난 1991년 광화문 네거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5년째 한 자리를 지키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광화문글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글판의 여운과 감동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념집을 엮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화문에서 읽다 느끼다 거닐다'에 담긴 문안은 총 73편으로 고은, 정호승, 도종환, 김용택, 공자, 헤르만 헤세 등 동서고금의 현인과 시인 40여명의 작품을 인용한 것들이다. 희망·사랑·꿈·위로·응원 등 테마별로 나눠 수록했으며 문안과 함께 전체 원문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문안을 장식한 작가소개와 글판 제작과정도 담겨 있다.

이번 기념집은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가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5월 광화문글판의 25년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일반시민, 대학생, 문인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감콘서트 '그 곳에 광화문글판이 있었네'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전세난 가속화… 임대주택, 구원투수 나서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관심↑
이달 말 'e편한세상 도화' 공급

종류별 청약자격·임대기간 달라
업계 "개인 맞춤형 전략 필요"


이달 말 공급되는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임대주택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비롯해 행복주택과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등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5.8%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 2012년 50.5%로 상승하고 지난해에는 55.0%로 더 올랐다.

반면 전세 비중은 지난 2006년 54.2%에서 45.0%까지 하락했다.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은 9년 새 15.3%에서 21.8%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전세난이 가속화되자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임대주택은 뉴스테이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지난 1월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민간업체가 중산층 이상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을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다.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입주 자격이나 청약 자격도 없다. 유주택자라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과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확대돼 선택의 폭이 넓다.

대림산업은 이달 말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 도화'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653가구 규모다. 이중 뉴스테이는 2105가구, 공공임대는 548가구다. 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보증금 5000만~6500만원에 월 43~55만원 수준이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3%다.

한화건설은 오는 9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서 전용 59~84㎡ 총 24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형별로 보증금 3000만~6000만원에 월세 70만~80만원이다.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지난 7월 올해 첫 입주하는 행복주택 847가구의 입주자 모집결과 8797명이 접수, 평균 10.4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 삼전 전용면적 20㎡는 최고 경쟁률이 208.5대 1, 서초 내곡 전용면적 20㎡는 62.6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경우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장기 전세 주택)도 있다.

이 임대주택은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현재 공급된 지역 중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입지가 좋은 곳도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은 물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도 필요하다.

이밖에 공공임대는 일정기간(5년·10년) 임대로 사용하다 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통장과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 단 분양전환은 안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난은 앞으로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임대주택 종류마다 청약자격, 임대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을 다짐하며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3진 아웃제 강화… 불공정 관행 척결

대한건설協 '자정결의' 선포
2000억 규모 공익재단 출범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와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제한 징계를 해제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 따라 건설업계는 연내 약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재단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건설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또 업계는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3진아웃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 고용난 해소와 동반성장 기반 조성, 건설근로자의 복지·안전 개전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형석 기자

주방엔 獨 명품가구… 女心 자극
지하엔 가구별 창고… 男心 저격

SK건설 '대치 SK뷰'
내일 견본주택 개관 분양 돌입
분양가 3.3㎡ 평균 3902만원

SK건설은 21일 '대치 SK뷰(VIEW)'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2층, 지상 10~20층 아파트 4개동 총 23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125㎡의 9개 주택형 중 84㎡A 8가구, 84㎡B 31가구 등 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3호선 대치역과 도곡역을 통해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남부순환로가 가깝고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쉬워 도심과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대치초·대곡초·대청중·숙명여중·휘문중고·단대부중고 등 명문학교가 가깝고 인근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한티근린공원·양재천 등 자연환경과 강남구민회관·코엑스·은마종합상가·강남세브란스병원·롯데백화점·이마트 등 문화·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있다.

아파트 내부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맞통풍이 용이하게 거실과 주방을 배치했다. 안방 드레스룸(발코니 확장시 제공)에 창문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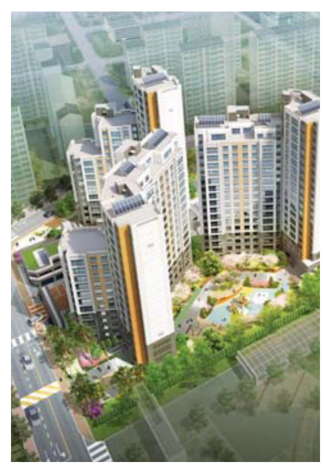
주방은 독일 명품주방가구를 도입(냉장고장·장식장 등은 제외)했다.

일반분양분인 전용 84㎡ 주택형은 3.5베이(Bay)를 적용해 늘어난 발코니 서비스 면적만큼 입주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하에는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가구별 전용 물품보관창고를 마련했다.

주차장은 지하에만 조성했다. 가구당 1.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전체 주차장의 80% 가량을 주차면 가로길이가 법정기준보다 20㎝ 가량 넓게 설계했다.

무선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지하주차장에서 개별가구 현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대치 SK뷰(VIEW)' 조감도. /SK건설 제공

단지 내에는 테마정원과 산책로가 조성되며 실내피트니스센터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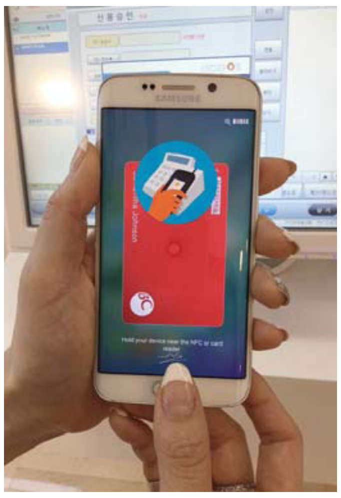
분양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이후 9월 2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902만원이다. 계약금 2회 분할납입과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SK뷰 주택문화관인 뷰갤러리(서울 강남구 개포동 176-2번지) 3층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6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오늘부터 삼성페이 국내 가동… 좀 굵힐까


삼성페이 실행화면.

모바일 결제시장 이미 치열
낮은 인지도·지원모델 4종
초반 점유율 확보 불투명

삼성페이가 20일 정식으로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도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삼성페이가 출시 초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에는 시장상황이 녹록지 않다. 현재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는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SK플래닛 '시럽페이', 네이버 '네이버페이', LG유플러스 '페이나우', 신세계 'SSG페이', NHN엔터테인먼트 '페이코' 등이 출시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삼성페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은 물론 일반 카드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가 되는 MST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페이는 별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가장 큰 무기로 꼽힌다.

특히 삼성페이는 지난 4월 열린 '갤럭시S6' 미디어데이에서 삼성페이를 7월 중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달로 정식 출시가 미뤄졌다.

그간 새로운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시장에 출시했고 사용자를 확보해나갔다.

지난 5월부터 '갤럭시S6'를 이용하고 있는 신은영(25)씨는 "요즘 간편 결제가 많아서 굳이 (삼성페이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며 "삼성전자가 뒤늦게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델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초반 시장 장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모델은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와 이날 출시된 '갤럭시노트5', '갤럭시S6 엣지+' 등 4종 뿐이다.

아울러 삼성페이의 낮은 인지도로 출시 초반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삼성페이 베타 테스트가 진행됐는데, 참여한 사용자들은 삼성페이를 사용하면서 결제방법에 대해 매장 직원에게 설명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화질·디자인 강점 OLED, 궁극의 디스플레이"

여상덕 LGD 사장 IMID 참석
OLED기술 미래청사진 제시

여상덕 LG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부장(사장)이 "OLED가 화질과 디자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상상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사장은 19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IMID2015' 개막식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OLED(OLED, it will change our life)'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여 사장은 디스플레이와 TV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우리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인 OLED가 가져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OLED 개발과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LG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여 사장은 "OLED는 TV 발전의 키워드인 화질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스플레이로, 전혀 차원이 다른 디스플레이 즉, 궁극의 디스플레이"임을 역설했다.


여상덕 LG디스플레이 OLED 사업부장 사장이 19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IMID 2015'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그는 "OLED는 완벽한 '블랙'으로 구현하는 무한대의 명암비, 풍부하고 정확한 색표현 등 화질뿐만 아니라 초박형 구현이 가능해 투명, 플렉서블, 벤더블과 같은 디자인 등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여 사장은 "LG디스플레이는 WRGB와 Oxide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OLED 시장을 열었으며, 55, 65, 77인치 UHD OLED TV 등을 선보이는 등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형·중소형 OLED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 사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OLED의 성장을 위해, 패널업체를 중심으로 세트업체, 재료,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은 물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조한진 기자 hjc@

삼성전자 '코리아 그랜드 세일' 앞장

면세점 등서 사은품 증정

삼성전자는 지난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위해 면세점과 디지털프라자 면세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과 사은품 증정 행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과 전국 20여개 시내 면세점에서 카메라·태블릿·로봇청소기 등 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배터리팩·핸디청소기 등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내달 1일부터는 인터넷 면세점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 면세 매장에서 카메라와 태블릿 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메모리카드를 증정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와 더불어 전국에 있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면세 매장을 이달 말까지 기존 43개점에서 61개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니온페이와 알리페이를 도입하고 외국인 응대 가능 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구매를 돕기 위한 매장 재정비에 나선다.



19일 서초동 삼성 딜라이트 면세 매장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태블릿과 카메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박재천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위축된 관광 수요의 활기와 내수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

삼성 TV 점유율, 10년 연속 세계 1위 가시권

세계 UHD TV 3대 중 1대 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TV의 매출액과 수량 모두 점유율을 높이며 10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가능성을 높였다.

19일 시장조사기관 IHS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에서 1분기보다 1.4%포인트 증가한 28.5%(매출액 기준)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1.1%포인트 증가한 2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UHD TV는 36.4%, 커브드 TV는 80.7%로 주요 TV 카테고리에서도 1위 자리를 고수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었다. SUHD TV(사진)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UHD TV와 커브드 TV 판매를 대폭 확대했다.



2분기에 전 세계에서 판매된 UHD TV 3대 중 1대 이상이 삼성전자 제품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2014년 1분기 처음으로 UHD T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6분기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조한진 기자

LG '무선 오디오' 라인업 강화… 글로벌 공략

곡면사운드바 등 3종 추가
유럽·북미·亞 순차 출시

LG전자는 곡면 사운드바, 포터블 스피커 등 총 3종의 무선 오디오 라인업을 추가해 글로벌 오디오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무선 오디오 신제품을 이달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 아시아 등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곡면 사운드바(모델명 LAS855M)는 메탈 소재에 곡면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다. 360W 출력에 좌우 각각 2개씩 총 4개의 트위터 스피커를 탑재했다.

포터블 스피커 2종(모델명 NP7860, NP5550)은 휴대성을 더욱 높인 제품이다. NP7860은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원통 모양의 텀블러 디자인에 최대 2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했다.

NP5550은 부피가 작고 최대 15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내장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와 자동으로 연동되는 오토 뮤직 플레이 기능을 지원해 사용자가 외부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듣던 음악을 집에 있는 스피커로 이어서 들을 수 있다. LG전자는 이


LG전자 모델이 무선 오디오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제품의 커버를 가죽 재질로 구성한 스페셜 에디션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내달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무선 오디오 신제품들과 자체 네트워크로 구동돼 야외에서도 여러 대의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멀티룸 기술을 선보인다. /임은정 기자

'힘+승차감+스피드' 상남자의 SUV

시승기

BMW '뉴 X4'

쿠페 스타일로 SUV와 차별화
출력 258마력·토크 57.1kg.m



최근 자동차시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이다. 아웃도어 열풍과 휴가철을 맞아 더욱 주목 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20% 대에서 올해에는 35%까지 증가했다.

BMW는 스포츠세단과 럭셔리카 개념을 접목한 SUV로 차별화를 하고 있다. BMW는 SAV(Sports Activity Vehicle)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자동차 브랜드와 비교를 거부한다. 스포츠 성향을 강조한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자부심 때문이다.

뉴 X4는 전통적인 세단도 아니고, 전형적인 SUV도 아닌 특유한 세련미가 풍기는 디자인이다.

루프에서 테일까지 쿠페 스타일의 라인으로 기존 SUV와 차별된 모습이다. 날렵하게 이어진 전면부의 키드니 그릴과 헤드램프는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릴과 배기구를 크롬으로 마감해 세련미를 강조한 디자인 패키지인 '엑스라인(xLine)'을 적용했다. 공기저항을 줄이도록 설계한 사이드미러는 방향지시등을 통합해 시인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시승한 모델은 뉴 X4 xDrive30d로 3.0ℓ 트윈파워 터보 디젤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 258마력에 최대 토크 57.1kg.m의 고성능을 자랑한다.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 도달에 걸리는 시간)이 5.8초에 불과해 스포츠카를 방불케 한다.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밟는 순간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시트에 밀착됐다. 속도계는 시속 100㎞를 훌쩍 넘어섰다. 스포츠쿠페에서 느낄 수 있는 스피드의 짜릿함을 뉴 X4 30d를 타고 느낄 수 있었다. 언덕도로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주행했지만, 차체가 흔들리거나 좌우로 쏠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아나갔다.

BMW가 강조하는 4륜구동 시스템인 xDrive의 효과였다. 저속 구간에서도 디젤차의 특유의 딱딱함 대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공식 복합 연비는 12.2㎞/ℓ지만, 3일간 경인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도로 100㎞ 정도를 달린 뒤 찍힌 연비는 11㎞대 초반이었다. 디젤차 치고는 아쉬운 연비이지만, 고성능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난하다.

가격은 뉴 X4 xDrive 20d xLine이 7020만원, 뉴 X4 xDrive 30d M 스포츠 패키지가 8690만원이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내달 출시 '신형 아반떼' 외관 렌더링 공개

'정제된 역동성' 추구

현대자동차는 9월 출시할 신형 아반떼(프로젝트명 AD)의 외관 렌더링 이미지를 19일 공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아반떼는 기본 조형에 라인을 더한 역동성이 특징이다.

외관은 주요 고객인 2030세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모던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통해 서 있어도 달리는 듯한 '정제된 역동성'을 추구했다.

전면부에는 얇고 스포티한 느낌의 헤드램프와 크롬 테두리가 적용된 헥사고날 그릴을 적용했다.

측면부에는 캐릭터 라인과 휠 아치 디자인을 채택해 정제된 느낌을 구현했다.

아반떼는 1990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전세계에서 총 1068만여대가 판매된 현대차의 대표 준중형 차종이다.

다음 달 출시하는 신형 아반떼는 5년 만에 선보이는 6세대 모델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신형 아반떼 렌더링 이미지

현대모비스

푸조·시트로엥과 손잡고 220억 규모 첫 수주계약

현대모비스는 프랑스자동차그룹 PSA(푸조·시트로엥)와 220억원 규모의 ICS(통합형 스위치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ICS(Integrated Center Stack)는 자동차의 멀티미디어 기능과 공조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다.

오디오·내비게이션·에어컨 등 운전자가 핸들 외에 조작하는 대부분의 스위치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자동차의 멀티미디어 기능이 진화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일부 선진업체만 생산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2008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ICS를 수주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천진공장에서 ICS 제품을 생산해, PSA의 프랑스 현지공장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최덕준 벤츠 세일즈 총괄 부사장(왼쪽)과 메르세데스-AMG C 63 S. /벤츠 제공

"AMG 라인업, 2020년까지 40개로 확대"

최덕준 벤츠 부사장 "고성능 시장 영향력 확대"

"메르세데스-AMG 국내 라인업을 2020년까지 40개로 늘리겠다."

최덕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세일즈 총괄 부사장은 19일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AMG 서킷 데이'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고출력 500마력 수준의 고성능카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성능 시장에서도 벤츠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출시된 AMG 모델은 총 13개다.

이날 벤츠는 '메르세데스-AMG C 63 S'와 '메르세데스-AMG GT S'를 중심으로 AMG 라인업을 총 동원해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서킷주행, 드래그, 슬라럼 등 다양한 코스위에서 AMG 모델의 폭발적인 가속력과 드라이빙 성능을 체험하도록 했다. 독일 본사에서 파견된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강사 4명이 참여해 AMG 모델을 각 코스에서 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메르세데스-AMG C 63 S는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순식간에 100㎞/h에 도달한다. 이 차는 정지상태에서 100㎞/h까지(제로백) 4초가 걸린다. 주행모드를 스포트 플러스로 놓으면 역동적인 차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최고출력 510마력, 최대토크 71.4㎏·m의 힘을 낸다. 후륜구동 방식의 이 모델은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가격은 1억3550만원이다.

메르세데스-AMG GT S는 지난달 한정판으로 출시된 2인승 스포츠카다. 서킷 위에서 4.0리터 V8 바이 터보 엔진이 내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듀얼 클러치 7단 스포츠 변속기, 스포츠 서스펜션 등을 탑재했다. 제로백은 3.8초다. 최고출력은 510마력, 최대토크는 66.3㎏·m다. 가격은 2억1900만원이다.

AMG는 고성능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벤츠의 서브 브랜드다. 올해 1~7월까지 957대가 팔려 전년대비 135.7% 판매량이 늘었다. 이러한 성장폭에 힘입어 벤츠는 고성능 시장 공세에 나섰다. 2020년까지 라인업을 40개까지 확대해 고객의 선택폭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벤츠는 이날 행사에서 3분기 출시될 '더 뉴 메르세데스-AMG C 63'을 선보였다. 이 차는 C클래스의 고성능 모델로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최고출력 476마력, 최대토크 66.3㎏·m의 힘을 낸다. 제로백은 4.1초다. 전 세계적으로 4만여대가 판매된 AMG 브랜드의 베스트셀링카다. 가격은 1억1600만원이다.

한편, 벤츠는 30일까지 AMG 서킷 데이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진행한다. AMG 고객, 기자단, 이벤트 당첨자 등 약 1000명이 참여한다. /용인=정용기 기자 yonggi@


당 신 의 화 장 대 에 일 어 난 놀 라 운 기 적
화장대를
부탁해
8월 20일 |목| 밤 9시
첫방송
SUN DAY CREAM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FashionN

최태원, 경제활성화·사회공헌 발 벗고 나서

혁신센터·주요 사업장 찾아 '현장경영'
SK, 노인 주거복지 위해 1000억 투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경영에 정성을 쏟고 있다. 최 회장 복귀 후 SK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그룹내 최대 연구시설인 대전 R&D센터와 이천 반도체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관계사 안팎의 구체적인 현장을 찾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최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SK 그룹의 설명이다.

전날 대전과 세종, 오송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뒤 곧바로 대덕에 있는 연구소를 찾은 최 회장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 노력에 대해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SK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양적, 질적으로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오후 최 회장은 SK하이닉스를 찾아 업무현황를 듣고 임직원들을 만나는 등 경제활성화 추진에 속도를 냈다. 최 회장은 "그 동안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 덕분에 SK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그룹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줘 자랑스러웠다"고 격려했다.

특히 임금 상승분의 일정액을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내놓기로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방문 소감을 밝히고 있다. /SK그룹제공

'임금공유제'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에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SK하이닉스발 상생문화 확산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사회공헌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SK그룹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SK그룹은 국가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후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이문석SK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은 서울 동작동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1차관을 만나 '저소득 노인용 주택·복지 혼합 동 아파트 건설사업' 재원 마련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SK그룹은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00억원, 2017년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이 돈은 정부가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에 기부되고, 세부 시기는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SK그룹이 이같이 저소득층의 노인복지 문제에 주목한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오는 데 기여했으면서도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SK그룹은 지난 17일 최태원 회장과 전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영회의에서 이 사회공헌위원장이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 온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선배 세대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선배세대와 국가 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SK가 기여해야 하는 것이 광복70년의 의미"라며 "이와 관련한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후 일사천리로 저소득층 주거복지가 추진됐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에 위치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00일 기념식에서 한종호 강원센터장(왼쪽 9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스마트 강원, 미래 열겠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00일

헬스케어·농업·관광 산업에 모바일·글로벌 접목할 것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강원센터)는 전날 출범 100일을 맞아 강원도를 혁신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스마트 강원' 비전을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센터는▲강원도의 전통 산업에 네이버의 최첨단 전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고 ▲모바일을 통해 강원도의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종호 강원센터장은 "강원도는 국내 최고의 청정 자원환경과 미래형 생태산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겸비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농업, 관광 등 강원도의 전략산업에 모바일과 글로벌을 접목해 신성장 산업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센터는 네이버의 ICT 역량과 강원 의료기기 산업을 연계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확장을 통해 국내를 넘어 원격진료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센터는 농작물 생육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강원도 스마트팜 사업을 구현하고 농업벤처 공모를 통해 농업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한다. 아울러 강원도 산악 지형의 '스마트 관광 지도' 구축과 함께 도내 관광자원 정보를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관광 큐레이션 서비스 '고(GO)'를 연내 선보인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유관 단체 기관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직원, 입주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 CNS, 협력회사 '기술 지킴이'로 나선다

기술지원 보호 설명회 개최

LG CNS(대표이사 김대훈)은 19일 서울 상암동 DDMC에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보호 및 상생결제시스템 설명회'를 전일 개최하며 협력회사 상생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협력회사 기술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선도한다는 계기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100여 개 협력회사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기술지원·보호정책(기술임치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협력회사 특허지원 정책 ▲상생결제시스템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LG CNS는 이날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인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DDMC에서 개최된 '기술지원·보호 및 상생결제시스템 설명회'에서 김지동 LG CNS 부장이 100여 개 협력회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LG CNS 제공

다. 2010년부터 협력회사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펀드 운영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기술임치 수수료와 영업비밀 원본증명 수수료, 협력회사 특허 출원료 등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LG CNS는 협력사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금지급 조건을 대폭 개선한 '상생결제시스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LG CNS가 1차 협력회사와 거래한 대금 지급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 3차 협력회사도 거래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정문경 기자

이통3사 "유심으로 철통 보안"

'기업용 스마트인증' 서비스 출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용 스마트인증' 서비스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19일 공동 출시했다.

기업용 스마트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정한 보안1등급 매체인 유심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직원들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유심에 저장해 해킹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게 특징이다. 기업의 관리자가 임직원의 인증서 발급·사용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임직원의 인증서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까지 통제할 수 있어 임직원의 인증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인증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통계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전용 고객센터(1577-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단말기당 9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정문경 기자

SK플래닛

'크리에이터 플래닛' 개최

SK플래닛이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제품, 그리고 이들을 O2O(Online to Offline) 커머스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아이디어 경연 행사인 '크리에이터 플래닛 2015'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9월 5일 개최될 행사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장작한 사례발표와 함께 최신 기술 트랜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참가 대상은 총 15개 팀으로, 인텔 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코리아, SK텔레콤 등이 포함돼 있다. /정문경 기자

장남 대신 빈소 지키는 CJ家 사람들

부인 손복남 경영고문, CJ그룹 기틀 세운 인물로 평가
딸 이미경, 엔터 사업 주역… 차남 이재환, 은둔 경영인





사진 왼쪽부터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경영고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 이틀째인 19일에도 추모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상주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 회장을 대신해 고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경영고문을 비롯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이 빈소를 지켰다.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1956년 손복남 고문과 결혼해 재현·재환·미경 등 2남1녀의 자제를 뒀다.

이화여대 교육학과 출신인 손 고문은 부친이 경기도 지사와 농림부 양정국장을 지낸 손영기씨다. 손 고문은 올해 여든두살의 고령에도 CJ그룹 경영담당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손 고문은 이 명예회장의 빈자리를 대신해 현 CJ그룹의 기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손 고문은 1994년 자신의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일제당 주식과 맞교환 하면서 제일제당을 삼성가에서 분리시킨 인물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된 이후 경영 공백을 우려해 그룹 내에 경영위원회가 꾸려지고 손 고문의 동생인 손경식 당시 대한상의 회장이 CJ그룹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 역시 손 고문의 의중으로 알려지면서 CJ그룹 내 막후 실세로 불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CJ그룹이 이 회장의 공백 속에서도 형제 간 분쟁없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손 고문의 남편인 고 이 명예회장이 장남임에도 형제간 갈등으로 인해 풍파를 겪는 것을 봐 왔기 때문"이라며 "제일제당 최대 주주로 있다가 1998년 주식 증여를 통해 경영권을 장남인 이재현 회장에게 몰아줌으로써 분쟁의 싹을 잘라 버렸다"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탕기업으로 알려진 제일제당은 이 부회장이 제일제당 멀티미디어사업부 이사를 맡기 시작해 CJ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상무, CJ엔터테인먼트 부회장, CJ미디어 부회장을 거치는 동안 영화와 방송, 음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식품을 포함해 문화사업까지 아우르는 CJ그룹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이 그룹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이 부회장 역시 이 회장과 같은 샤르코-마리-투스(CMT)라는 유전성 신경질환을 겪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차남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조용하다 못해 베일에 쌓여 있는 탓에 재계 일각에서는 '은둔의 경영인'으로 불린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의 관계사로 극장과 옥외 광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광고대행사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CJ제일제당에서 기획업무를 맡아 상무로 근무했지만 2005년 돌연 퇴직한 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고 자신만의 독자 경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이 누나인 이 부회장과 함께 여러 대내외 행사에 함께한 것에 비해 이 대표는 공식석상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환 대표는 제일제당 시설에도 아는 직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직원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별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게는 배다른 동생도 있다. 이 CJ그룹 명예회장의 숨겨진 셋째 아들인 이재휘씨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휘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고 이 회장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재휘씨는 2012년 양육비 청구 소송 이후 생전 부친을 뵙거나 가족 등과 연락한 적이 없어 고 이 명예회장의 장례일정 등에 관해서도 가족과 CJ그룹 측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 이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등 정계와 박정원 두산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 정도원 삼표 회장, 이명우 동원산업 사장, 이희상 동아원 회장, 추성엽 팬오션 사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의 재계 관계자들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자승 스님 등 조계종 총무원 일행이, 연예계에서는 가수 로이킴·정준영, 배우 독고영재 등이 빈소를 찾았다.

장례는 CJ그룹장으로 20일 치러진다. 발인은 같은 날 오전 7시, 영결식은 오전 8시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한다. 장지는 경기 여주로 정해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이맹희, 은둔의 삶… '묻어둔 이야기' 재조명

아버지의 '복귀' 의사에 불복… 차남의 '모반' 개입 오해
호암 소실, 구라다상과의 관계로 불화 소문… 소설일 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

"아버지와의 결별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가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당시 아버지는 '7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그룹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던 셈이다. 말하자면 내가 아둔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1993년 낸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삼성가의 장남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삼성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과 애증의 삶을 살았던 사연에 대해 이같이 고백한다.

삼성은 고인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7년동안 정열을 불태운 곳이다. 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삼성에서 나오게 됐을까.

호암이 장자승계 원칙을 깨고 고인을 삼성 후계 구도에서 제외, 3남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을 맡긴 이유로는 경영 능력 부족과 청와대 투서 사건 등으로 알려져 있다.

1966년 삼성 계열사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적발 사건(한비 사건)으로 재벌의 도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호암은 책임을 지고 2선으로 물러난다. 이후 1967년 7월 맹희씨가 삼성의 총수 대행으로 나섰다. 하지만 2년 후 해외 100만 달러 밀반출,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의 탈세 등 청와대 투서 사건이 불거졌다. 호암이 맹희씨가 투서를 했다고 믿었고 이후 호암과 사이가 멀어지며 삼성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고인은 하지만 자서전을 통해 "이 문제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인이 투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한다.

자서전에 따르면 투서 사건은 차남 창희씨의 '모반(謀反)'이었다. 한비 사건으로 6개월 정도 형을 살고 난 창희씨가 기업 운영은 전부 형인 고인이 맡고 있고 옥살이까지 하며 고생을 했던 자신은 배제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이후 이병철 회장은 서서히 다시 삼성에 복귀했으며 맹희씨는 서서히 삼성에서 밀려났다.

고인은 삼성을 떠나게 된 결정적 이유를 '아버지의 복귀 의사'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비 사건을 기점으로 삼성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1970년을 넘기며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부드러워지자 호암이 서서히 삼성의 경영자로 컴백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73년 여름. 호암은 고인을 불러 '니 지금 명함을 몇개나 가지고 있노?'라고 물었고 '니가 다 할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당시 고인은 삼성전자·중앙일보·삼성물산·제일제당·신세계·동방생명·안국화재·제일모직·성균관대·삼성문화재단 등의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직책으로 17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호암은 의논조로 '이건 하기 힘들제?', '이건 너 할 수 없제?'라고 하며 연필로 직함들에 줄을 죽죽 그었다. 그렇게 줄을 긋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제일제당의 부사장 직함 3개를 남겨 두었다. 고인은 그제서야 사태를 깨달았다고 했다. '아, 아버지가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시는 구나.'

이후 호암은 한걸음씩 회사 내부의 마찰을 줄이면서 다시 복귀를 했고, 고인은 점차 삼성과 멀어졌다.

이후 호암은 1976년 후계자로 이건희 회장을 공식 지목했고 이 회장은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후 10년 만인 1997년 삼성가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 이재현 회장의 CJ, 이명희 회장의 신세계로 계열 분리된다.

'묻어둔 이야기'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금기(禁忌)도 공개돼 흥미롭다.

고인은 자신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호암과 불화가 있게 된 이유가 구라다상을 두고 호암과 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썼다. 삼성을 소재로 한 '유리상'이라는 소설에 나온 이야기로 그야말로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인에 따르면 호암은 일본 여자 구라다상을 소실로 두고 있었고 둘 사이에 태어난 태휘, 혜자를 호적에 올렸다.

/염지은 기자 senajy7@



현대百, 레드 란제리 페스티벌 19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레드 란제리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3층 특별 행사장에서 '레드 란제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롯데, 지배구조 개선 속도

호텔롯데, IPO 주관사 선정 정관개정 등 상장 본격 작업

사외이사 선임 검토 기준 자산 3000억 이상 계열사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이달 말까지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 계획을 밝히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신 회장이 지난 11일 지배구조 개편과 호텔롯데 상장 계획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계열사 상장은 신동빈 회장이 추구하는 롯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신 회장은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주요 계열사 전부가 상장해야 한다는 뜻을 임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롯데는 19일 "국내외 10여개 증권사에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한 뒤 이달 31일까지 주관사 후보 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주관사를 결정한다.

주관사가 확정된 이후 관련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정관 개정 작업 등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호텔롯데를 시작으로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과 롯데리아 등 롯데 계열사 전반으로 IPO가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회계 기준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계열사는 202개에 이르는 반면 상장 기업은 한국 롯데 쇼핑과 롯데 케미칼 등 9개사에 불과하다. 롯데는 이에 중장기적으로 다른 비상장 계열사들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 고위 관계자는 "호텔롯데 뿐 아니라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 다른 계열사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상장 등 기업공개 과정을 거쳐 경영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게 신동빈 회장의 기본 경영 철학"이라고 말했다.

롯데정보통신 상장은 이미 1~2년 전부터 검토돼 왔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호텔롯데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상장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앞서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비상장 계열사들에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기준이 될 계열사의 자산 규모는 3000억~5000억원 수준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90%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롯데그룹은 일본에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조만간 공식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방안들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단팥크림 코팡' 연일 매진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일 출시한 '단팥크림 코팡'이 열흘 만에 3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단팥크림 코팡은 파리바게뜨가 프랑스 파리 매장인 샤틀레점과 오페라점에서 '브리오슈 크렘 드 레드 빈'이라는 제품명으로 선보이며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중인 제품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추세를 감안하면 출시한달 안에 100만개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GS홈쇼핑, 유커 대상 모바일쇼핑 서비스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CTrip)'과 손잡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대상으로 모바일 쇼핑 사업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앱에서는 ▲한국 인기상품과 GS홈쇼핑의 히트상품을 지정한 날짜에 호텔 및 숙소로 배송 ▲테마파크 입장권, 외식 쿠폰 등 판매 ▲관광명소, 쇼핑, 맛집 등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지도 ▲위치정보에 기반한 인근 할인쿠폰 제공 등의 서비스가 선보인다. /박상길 기자

에피그램,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독립

코오롱그룹의 패션사업 부문인 인더스트리Fnc(대표 박동문)의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리즈 세컨 브랜드 '에피그램(epigram)'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독립한다.

Fnc는 에피그램이 오픈하는 21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단독 매장을 시작으로 독립 브랜드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에피그램 현대 판교점은 1인 가구의 집을 콘셉트로 하나의 매장에 주방, 침실, 거실, 정원을 구성해 실제 거주 형태를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박상길 기자

'윈저 더블유 아이스' 판매망 확대

디아이지오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는 35도 프리미엄 스피릿 드링크 '윈저 더블유 아이스'를 서울·수도권 시장으로 확대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윈저 더블유 아이스는 지난 3월 부산·영남 지역에 출시된 이후 한달 만에 석 달 치 재고가 소진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영남 지역 출시 4개월 만에(3월~6월) 판매된 양은 2만 2420상자(1상자=9리터, 44만8400병)으로, 영업소의 재주문 비율은 일반적인 수준인 40~50%를 뛰어넘는 83%에 이른다.



윈저 WICE /디아지오코리아 제공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오리온, 베트남 현지화 전략 통했다"

올 상반기 매출 840억 누적 매출 1조원 돌파 제과 시장 점유율 1위

오리온(대표 강원기)은 베트남 누적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오리온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840억원을 올리며 베트남 누적 매출이 1조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첫발을 내딛은 오리온은 2006년 호치민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듬해인 2007년 267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래 지난해에는 매출 1501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의 고성장은 초코파이와 스낵 제품들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판매량 20억개를 기록한 초코파이는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38% 점유율을 차지하며 국민 파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리온 베트남 제품. /오리온 제과

포카칩, 고래밥, 오!감자 등 스낵류는 오리온 베트남 매출의 25%를 차지하며 핵심 카테고리로 성장 하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리온은 현지 최대 제과업체인 낀도사를 제치고 베트남 제과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의 이같은 성공에 대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제품포장에 우리나라의 '정(情)'과 유사한 뜻을 지닌 베트남어 'Tinh(띤)'을 넣어 현지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이제는 제사상에도 오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오리온 베트남법인은 신제품 출시를 통해 제품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베트남 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 현지 1위 제과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베트남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인근 동남아 국가 진출의 발판이 될 중요한 거점"이라며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제과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LF, 80억 동반성장 프로그램 가동

LF(대표 구본걸)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 마키노차야에서 41개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고 8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LF는 올 한 해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여, 설비 투자 지원 등 직접 지원에 21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은행에 55억원의 예금을 조성해 중소 협력업체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 중소 협력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우수 인재 채용을 돕는다.

LF는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한 맞춤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닥터제'를 시행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협력업체의 경영과 관련한 비금융 부문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간담회도 연간 2회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상길 기자



LF 동반성장 간담회. /LF 제공

男 전용 스파, 10% 할인

더 리버사이드 호텔

'더 메디스파' 연말까지 행사
발레·6시간 무료주차 혜택


릴렉스 룸 전경. /더 리버사이드 호텔 제공

더 리버사이드 호텔(가우플랜 대표 안필호)은 남성전용 24시간 스파&사우나 '더 메디스파' 요금을 연말까지 10% 할인한다.

더 메디스파의 릴렉스존에는 개인 TV가 달린 100여 개의 개별 전동베드와 영화관을 갖추고 있다. 특급호텔 쉐프가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바, 비즈니스 모임이 가능한 미팅룸과 한강 조망의 사우나 등의 설비로 힐링 멀티 플레이스 역할을 한다.

더 리버사이드 호텔 관계자는 "특히 월 5000명 정도가 마사지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있는 더 메디스파의 메디컬 마사지는 묵은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혈과 기를 다스려 치료를 받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품격높은 관리사들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장료 할인가는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이다. 발레 주차와 6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위·대장암 원인부터 완치까지 깨알정보 공개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개소 5주년 기념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와 위암·대장암협진센터(센터장: 김광호·사진)가 오는 9월 2일 김옥길홀에서 개소 5주년 기념 건강강좌·김장훈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성애 위·대장센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건강강좌는 김승철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위암 복강경 수술(이주호 외과 교수) ▲대장암, 왜 증가하는가?(문창모 소화기내과 교수)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김성은 소화기내과 교수)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건강강좌가 끝난 후 이화여대 의과대학 댄스동아리 '8second s'의 축하 공연과 함께 환우 편지·수기 낭독이 이어진다. '기부천사'로 이름난 가수 김장훈 씨의 재능기부로 축하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건강강좌에 참여한 환자와 지역 주민들 전원에게 치약치솔 세트와 2016년 달력, 물티슈가 제공된다. 또 추첨을 통해 위·대장 내시경 촬영권과 바디케어세트, 도서 등이 경품으로 주어진다.

김광호 위·대장센터와 위암·대장암협진센터장은 "개소 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 환자와 지역 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전문의들이 전달하는 정확하고 알찬 건강 정보도 얻고, 가수 김장훈씨의 축하 콘서트를 통해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와 위암·대장암협진센터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신생아 모자 뜨기, 환우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야구 관람, 오색 건강 비빔밥 만들기와 함께 완치 환자 축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02-2650-5887)

/최치선 기자 chisunti@

건국대, 13개 개도국에 농축산 노하우 전수

아프리카·중남미 공무원 초청
'가공·마케팅 석사과정' 운영


건국대학교가 해외 13개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한다. /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 KU국제개발협력원(민상기 원장, 부총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중남미 등 해외 개발도상국 13개국의 농축산 관련 공무원들을 초빙해 농축산 가공과 마케팅 분야 기술을 전수하는 'KOICA-KU 농축산 가공·마케팅 분야 석사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석사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해외 교육 사업으로 원서접수, 서류심사, 전화인터뷰를 거쳐 미얀마·몽골·필리핀·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가나·알제리 등 13개국 공무원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학기 수업과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며 귀국해 마지막 학기에 원격 논문 지도와 논문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농학석사·경영학석사)를 받는다.

김두환 KU국제개발협력원 교육연수센터장은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농축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국대에서 연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롯데百, 전 지점서 1200억 규모 '웨딩페어'

구매금액별 상품권 제공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20일부터 30일까지 전 지점에서 1200억원 규모의 '롯데 웨딩페어'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식 비용을 줄이는 대신 가전, 가구에 비용을 투자하는 실속 웨딩 트렌드에 맞춰 상품권 증정 비율을 높이고 기획상품을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행사기간 가전, 가구, 해외명품을 구매하는 예비부부(웨딩멤버스 회원 한정, 롯데카드 결제시)에게는 구매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제공한다. 9개월간 누적 구매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증정하는 기존 웨딩 마일리지보다 강화됐다.

/박상길 기자

갤러리아百, 오늘부터 3일간 '모피대전'

모피·코트 최대 70% 할인

갤러리아백화점(대표 황용득)은 대전 타임월드, 천안 센터시티, 수원점에서 모피·코트 상품을 최대 70%할인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타임월드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진도모피 기획상품으로 블랙그라마 휘메일 재킷이 349만원, 블랙 휘메일 재킷 239만원, 엘페 블랙조끼가 199만원에 판매된다.

센터시티에서는 같은 기간 진도모피의 경우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4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원점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 8층 이벤트홀에서 모피대전을 진행한다. 동우모피, 태림모피, 다나모피 3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박상길 기자

블랙야크키즈 후원 '예쁜 어린이 선발' 성료

3500명 지원 최종 4명 선발



블랙야크(대표 강태선)는 블랙야크 키즈에서 후원하고 감성예술놀이학교 에끌플레종이 주최한 '제1회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3500여 명이 지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 서초구 양재동 다산 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이 날은 서류와 예선을 거쳐 선발된 40명의 어린이들이 결선을 펼쳐 4명의 어린이가 최종 선발됐다. 대상을 수상한 이지유 어린이(5세)는 에끌플레종 모델로서 방송과 TV CF로 활동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박상길 기자

광릉수목원 인근 전원주택단지 분양

토지·건축비 포함 2억원대

경기도 포천시 직동2리 유네스코 청정마을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선다.

분양가격은 평(3.3㎡)당 120만원이다. 토지와 건축비를 포함해 최소 2억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실속형 보금자리 전원주택이다. 현재 126평대 필지부터 266평 필지까지 모두 11개 필지중 9개가 분양 중이다.

현재 택지공사가 완료됐으며, 토지는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인근 포천 고모~직동 간 15미터 도로 확포장공사가 2016년 9월에 마무리된다. 주택지를 지나는 마을 버스가 운행 중이다. 동부간선도로 이용 시 서울까지 50분 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공사 중인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2017년 2월 개통예정)를 활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다.

문의: 010-9602-5655, 010-5354-6739

/김형석 기자 khs84041@

서울 강남역 도보 5분 임대용 빌딩 매매

임대수익 월 3000만원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의 임대용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이 건물은 대지 330㎡, 건평 900㎡ 근생빌딩이다.

매매가는 64억원(융자40억)이며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임대료 월 3000만원 수익이 발생한다.

인근에는 업무용 비즈니스 빌딩과 대형 학원, 근생시설이 밀집돼있다.

문의: 02) 557-1027, 010-5273-3985

/김형석 기자

star bag

팬과 함께한 10주년



배우 **이현우**가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다. 이현우는 최근 소속사 키이스트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이벤트로 선정된 10명의 팬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 주인공 발탁



배우 **윤진서**가 드라마 '나에게 건배'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반복되는 업무에 치이는 출판사 10년차 에디터인 라여주 역을 맡았다. '나에게 건배'는 오는 11월 유맥스(UMAX)에서 방송된다.



새 미니앨범 발표

남성 보컬그룹 **SG워너비**가 19일 오후 10시 새 미니앨범 '더 보이스(THE VOICE)'로 컴백했다. 프로듀서 조영수와 히트 메이커 김도훈이 참여했다. 타이틀곡 '가슴 뛰도록'과 '좋은 기억'으로 활동한다.



컬래버레이션 신곡

걸그룹 씨스타 멤버 **효린**, 그룹 블락비 멤버 **지코**, 래퍼 **팔로알토**가 함께 한 신곡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스타쉽 측은 "국내 최정상에 서있는 세 아티스트의 개성과 아우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7년 만에 솔로 컴백



그룹 신화 멤버 **전진**이 생일인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 앨범의 로고와 발매일을 공개하며 컴백 소식을 전했다. 2009년 5월 이후 7년 만의 솔로 컴백이다. 새 미니앨범은 내달 7일 발매된다.

'당돌·솔직' 지이, 저랑 많이 닮았죠

드라마 '상류사회' 마친 **임지연**

지난달 28일 종영한 SBS 월화극 '상류사회'는 익숙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교묘하게 비튼 신선함이 있는 드라마였다. 재벌과 서민이라는 서로 다른 계급을 지닌 네 남녀의 이야기를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며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심에는 임지연(25)이 연기한 '비타민 같은 캐릭터' 이지이가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이지이는 가난해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물이다. 여자라면 한번쯤 꿈꿀법한 신데렐라 로맨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당찬 성격의 소유자다. 임지연은 이지이를 만나 즐겁게 연기했다. 실제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저랑 닮은 점이 많아서 매력적이었어요. 다양한 걸 표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전하고 싶었죠. 현장에서는 최대한 마음껏 연기했어요. 제가 평소 잘 하는 제스처나 말투, 애교 등을 다 보여줬으니까요. 자유롭게 논다고 생각하며 연애하듯 연기했어요."

물론 힘든 점도 없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드라마 현장이었다. 영화에서처럼 긴 시간 캐릭터를 연구하고 연기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다. 유이, 성준, 박형식 등 또래 배우들과의 호흡이 드라마의 빠른 작업 속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 촬영 전부터 배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진 덕분에 보다 편안하게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자신보다 드라마 경험이 조금 더 있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도 많은 자극을 받았다.

'상류사회'가 시청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이와 창수(박형식)의 로맨스였다. 평범한 서민 여자와 재벌 3세 남자의 로맨스라는,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지만 '상류사회'는 이를 뻔하지 않게 그렸다. 창수 앞에서도 늘 당돌한 지이, 그리고 재벌이라는 계급이 아닌 요즘을 살아가는 평범한 20대로 지이를 대하는 창수의 풋풋한 모습이 시청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짜 연애하는 것 같은 설렘을 느꼈어요. 창수와 같이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장면이 그랬죠. 그때는

> 실제 성격과 비슷한 캐릭터
> 연애하듯 자유롭게 연기해
>
> 마음가는대로 선택한 작품
> 초심만큼은 잃지 않을 것
> "

이지이인지 임지연이지 모르고 연기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창수라는 인물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창수와 헤어지는 장면을 찍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집에서 그냥 혼자 우는 장면이었는데 묵은 상처를 풀어내다 보니 그 감정 표현이 무척 힘들더라고요."

임지연은 데뷔작인 영화 '인간중독'에서 신비로운 이미지로 대중에게 첫 인상을 남겼다. 두 번째 영화 '간신'에서는 비운의 여인으로 무거운 감정을 관객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일까.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에서 보여준 친근함, 그리고 '상류사회'에서 보여준 사랑스러운 캐릭터는 보다 대중적인 배우가 되기 위한 이미지 변신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임지연은 "어떤 의도가 있기보다 마음가는대로 작품을 선택할 뿐"이라고 말한다.

"느낌대로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물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즐겁고 재미있어서 연기를 시작한 초심만큼은 잊고 싶지 않아요. 빨리 성장하고 싶고 배우로서 욕심도 많이 느껴요. 하지만 마음가는대로 하면서도 조급해 하지 않고 진득하게 가려고 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시나위, 故 신해철 추모 무대 오른다

'마왕, 신해철을 추억하다'
22일 성남 중앙공원 개최

록 밴드 시나위가 고(故) 신해철을 추모하는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시나위는 오는 22일 성남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파크 콘서트'에서 '마왕, 신해철을 추억하다'라는 타이틀의 추모 콘서트에 참여한다.

'파크 콘서트'는 매년 여름 도심 속 자연 공간에서 멋진 음악이 함께하는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콘서트다. 시나위가 참여하는 무대에는 가수 한영애와 신해철이 이끌었던 밴드 넥스트도 함께 한다.



많은 이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었던 '마왕' 신해철을 추억하는 의미로 열리는 뜻 깊은 콘서트다. 참여하는 뮤지션과 관객 모두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감동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서트를 앞둔 시나위는 "취지에 맞는 뜻 깊은 무대를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며 "우리의 음악과 마음이 하늘까지 닿기를 바라고 있다. 관객들도 함께 한 마음이 돼 콘서트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나위는 기타리스트 신대철을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로 1986년 국내 최초의 헤비메탈 앨범이자 데뷔 앨범인 '헤비메탈 시나위'를 발표해 당시 대중음악계의 충격을 선사했다. 김종서, 서태지, 임재범 등을 배출하기도 했다.

현재는 1996년 5대 보컬로 활동했던 보컬리스트 김바다와 함께 활동 중이다. 지난 7월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현재는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WOLFGANG AMADEUS MOZART
DIE ZAUBERFLÖTE
타미노 나승서 파미나 박미자 밤의여왕 오미선
파파게노 김동섭 자라스트로 장영근 파파게나 김문희
모노스타토스 김동섭 1st 시녀 김윤지 2nd 시녀 이미선 3rd 시녀 류현수
변사 김대엽 1st 무사 최경일 2nd 무사 김준한 천사 이민지 신소연 안지혜
지휘 서희태 연출 이의주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시흥시립합창단
2015. 9. 19(토) 7:30PM / 9. 20(일) 5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후원 시흥시 SIHEUNG CITY 빙그레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VIP 7만원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B 1만원 공연문의 02-6292-9370

누가 이들 손에 칼을 쥐게 만들었나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회사라는 일상적 공간 공포의 무대로 직장인 공감할 이야기로 긴장감 전해

■ 오피스

'오피스'(감독 홍원찬)는 어느 평범한 회사원의 가족 살해 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다. 회사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공포의 무대로 삼아 긴장과 서스펜스를 만들어내 호러영화 같은 분위기도 자아낸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아프다.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참혹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다.

사건은 어느 회사의 영업부 직원인 김병국(배성우) 과장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종적을 감추면서부터 시작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직장 동료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책임감 강하고 고분고분하며 일밖에 몰랐던' 김병국 과장이 가족을 죽일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영업부 직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한다. 단 한 사람, 김병국 과장을 잘 따랐던 인턴 이미례(고아성)만이 사무실 안에 생겨난 작은 균열을 예감할 뿐이다.

묵묵히 일하며 번듯한 집과 가족을 꾸리며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의 긴장감도 바로 이 질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오피스'는 그 대답을 주변 인물들로부터 찾아간다는 점에서 보통의 스릴러 영화와 다르다. 영화가 김병국 과장보다 사건을 대하는 동료 직원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그리고 여기에 영화의 진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영화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장면들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김병국 과장이 이미례에게 서랍 속에 숨겨진 칼을 보여주는 신이다. 김병국 과장은 말한다. "칼을 손에 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마치 묵주와도 같다"고 말이다. 일련의 사건 속에서 영업부 직원들은 하나 둘 죽거나 사라진다. 그리고 뜻밖의 범인이 등장한다. 정말 더 큰 공포는 범인의 정체에 있지 않다. 바로 회사라는 조직이 평범한 사람들 손에 칼을 쥐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때때로 현실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경험을 한다. 그것은 회사라는 조직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그만큼 엉망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대한 은유와도 같다. '오피스'를 보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슬픈 여운이 오래 남는다. 영화보다 더 스릴러 같은 현실이 지금도 회사 어딘가에서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15세 이상 관람가. 9월 3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후루룩 말아 먹는 묵사발의 맛

◆ KBS1 '한국인의 밥상'

오후 7시30분

배고픔을 면하는 구황 음식이자 별 다른 반찬 없이도 훌륭한 여름 한 끼인 '묵'을 맛본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심어놓았다고 기록됐던 도토리가 여름철 별미 음식으로 변신했다. 시원하고 구수한 도토리묵밥과 탱글탱글한 도토리묵무침까지, 서민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도토리를 만난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의 별미 돼지껍질묵도 공개한다.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40분

장서희·윤건 부부는 석고 공예 체험을 하며 이색데이트를 즐긴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은 채로 석고로 본을 떠 완성품을 만들어낸다. 손을 밀착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낸다.



◆ 엠넷 '슈퍼스타K7'

오후 11시

첫방송부터 실력자들이 등장한다. 18세 여고생 박수진은 특유의 리듬감과 그루브를 자랑하며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미모의 19세 김민서는 보이시한 목소리로 이목을 사로잡는다.



◆ KBS2 '해피투게더'

오후 11시10분

배우 남보라가 13남매의 위용을 드러내는 가족 이야기를 꺼낸다. 13남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진기한 에피소드, 그리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가족사를 모두 공개한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일(목)

KBS1	KBS2	MBC	SBS	JTBC	MBN	Story on	tvN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광복70년 특집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인간극장 스페셜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여자를 울려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2/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유자식상팔자 (재) 10: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50 비정상회담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나는 자연인이다 (재) 11: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05:10 리틀빅 히어로 06:00 곽승준의 쿨까당 06:40 Let 미인 5 (재) 08:00 고성국의 빨간 의자 08:50 오 나의 귀신님 (재) 11: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수요미식회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2015 평창 스페셜 아트뮤직 페스티벌 폐막공연 15:25 행복한 지도 (재) 16:05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 꿈을 쏘다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45 우리동네 예체능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 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콩다콩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여왕의 꽃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문화가중계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을 찾아서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 50 뉴스&이슈	13:10 명단공개 (재) 14:10 현장토크쇼 택시 15:20 수요미식회 16:40 울지 않는 새 17:30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	13: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5:0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재) 16:20 집밥 백선생 (재) 17:40 코미디 빅리그 (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세계석학이 본 대한민국 경제 100년 4부작 23:00 KBS 뉴스라인 23:40 발굴추적 항일 무장 투쟁의 선구자, 김규흥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오늘부터 사랑해 20:30 생생정보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2:00 어셈블리 23:10 해피 투게더 24: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 30 리얼스토리 눈 22:00 밤을 걷는 선비 23:15 경찰청 사람들 2015 24:35 MBC 뉴스 24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용팔이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을 찾아서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3:00 썰전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알토란 (재) 21:50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8:50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 20:00 코미디 빅리그 (재) 21:40 집밥 백선생 (재) 23:00 이것은 실화다 24:20 현장토크쇼 택시 (재)	19:00 삼시세끼 정선편 (재) 20:40 젠틀맨리그 21: 40 비법 23:00 슈퍼스타K7 (첫회) 24: 40 집밥 백선생 (재)

박한이, 15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 기록 도전



양준혁 이어 2위… 부상 속 타격감 되살아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박한이(36)가 15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 달성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삼성은 20일 현재 NC 다이노스전을 포함해 35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박한이는 남은 경기에서 28안타 이상을 쳐내면 세자릿수 안타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박한이는 올 시즌 험난한 여정을 걸었다. 지난달 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전에서 도루를 시도하다가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1개월 가량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15일 포항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1군에 복귀했다.

4월 22일에도 엔트리에서 말소돼 5월 16일 복귀했다. 역시 부상 때문이었다. 두 차례나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박한이는 100안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꾸준함의 상징' 박한이에게 신인(2001년) 시절부터 이어온 연속 시즌 세자릿수 안타 기록은 무척 소중하다. 양준혁(16시즌 연속 100안타)에 이어 이 부문 2위인 박한이는 올해와 내년 세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면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린다. 2017년에도 100안타 이상을 기록하면 양준혁을 뛰어넘게 된다.

2001년 삼성에 입단해 벌써 15년째 팀의 주전 외야수로 활약하고 있는 박한이는 늘 '거포'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팀에 입단할 무렵 삼성 타선은 '국민타자' 이승엽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2002년에는 양준혁이 삼성으로 돌아왔다. 2005년에는 심정수가 자유계약선수(FA)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고, 2008년부터는 최형우가 팀의 간판타자로 활약했다.

그러나 박한이는 꾸준함을 잃지 않았다. 변함없이 삼성 타선을 지키며 4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타격감 못지 않게 뛰어난 수비력은 15년 동안 삼성을 거친 감독들로부터 믿음을 받았던 이유다.

2009년 부상이 겹치면서 104안타로 힘겹게 기준선을 넘은 박한이는 올해 다시 고비를 맞았다. 그러나 남은 경기 꾸준하게 출전하면 충분히 100안타를 채우는 게 가능하다. 이미 올해 58경기에서 71안타를 생산했다. 경기당 1.2개의 안타를 쳤다. 41일 만에 1군으로 복귀한 한화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박한이는 16일 한화전에서 복귀 후 첫 안타를 결승타(4타수 1안타)로 장식하더니 18일 두산전에서는 멀티히트(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타격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강정호, 데뷔 첫 해 두자릿수 홈런

추신수, 4경기 연속 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강정호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을 포함해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5를 유지했다.

강정호는 팀이 7-3으로 앞선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조시 콜맨터를 상대로 좌월 솔로 홈런을 터트렸다. 7경기만의 홈런이자 올 시즌 10호다. 이로써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에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게 됐다.

앞서 세 번째 타석이었던 5회에는 우전안타를 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도 기록했다. 피츠버그는 15회까지 가는 연장 접전 끝에 9-8로 승리했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같은날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지난 16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4경기 연속 안타 기록이다. 시즌 타율은 0.245에서 0.246(391타수 96안타)으로 올랐다.

전날까지 5연승을 달렸던 텍사스는 시애틀에 2-3으로 패했다.

/하희철 기자



손흥민, 3시즌 연속 본선 진출 '비상'

레버쿠젠, 챔스 PO 1차전 0-1 패

손흥민(23·레버쿠젠)의 3시즌 연속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진출에 비상이 걸렸다.

레버쿠젠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오에서 세리에A 라치오와 가진 2015-16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0-1로 패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린다. 레버쿠젠은 27일 홈에서 열리는 2차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로 출전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2013-14시즌 처음 챔피언스리그에 나섰던 손흥민은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 1, 2차전 합계 1-6으로 크게 져 탈락했다. 지난해에도 16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 패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는 모두 득점을 올리며 팀의 본선행을 이끈 바 있다. 2차전의 활약 여부에 따라 팀의 본선 진출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레버쿠젠은 이날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3위에 올랐던 라치오를 맞아 후반 30여분까지 팽팽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교체 투입된 라치오의 케이타 발데 디아오가 레버쿠젠 진영 페널티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는 바람에 졌다. /하희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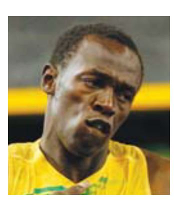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오에서 열린 2015-16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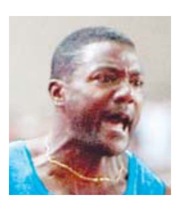
볼트 vs 게이틀린 '세기의 대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2일 베이징서 개막

우사인 볼트(29·자메이카·사진 왼쪽)와 저스틴 게이틀린(33·미국·오른쪽)이 육상 단거리 세계 최고 자리를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친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4대 스포츠 중 하나인 제15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한다. 207개국 1936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볼트다. 이번 대회 100m와 200m, 400m 계주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볼트는 세계 육상 단거리 역사상 최고 선수로 꼽힌다. 남자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기록 보유자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대회에 강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100m, 200m, 400m 계주를 석권했다. 2009년 베를린과 2013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100m, 200m, 400m 계주 금메달을 차지했다.

게이틀린도 만만치 않다. 게이틀린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3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에서 볼트에 밀렸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는 다르다. 올해 남자 100m에서 9초7대를 뛴 선수는 게이틀린 뿐이다. 반면 볼트는 2013년 모스크바에서 9초77을 기록한 이래로 한 번도 9초7대 기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희철 기자

CEOs of IT industry replaced with the generations from 1970s and 1980s

IT업계 30대 CEO 급부상

As the CEOs are replaced with the generations from 1970s and 1980s, the CEOs of portal sites and game industry are growing wary.

On the 18th, according to DAUM KAKAO, Lim Ji Hoon has been nominated as the CEO of the IT company, market cap of about 8-trillion-Won.

It is said that this is not only a change with a younger CEO but a change with a newer generation to lead the trend of the market.

Lim is not the first one to be nominated as a CEO who is in his/her 30s.

Since the people in their 30s had been raised pretty much familiar with games and the use of portal sites which enabled them to well-grasp the trend and business strategies of the IT market.

It became necessary to have an ability to respond sensibly and instinctively to the fast changes of game industry and IT business.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임지훈 다음카카오 신임 대표 내정자

IT 업계 최고경영자직이 1970~1980년대 세대로 물갈이 되면서 포털·게임사 현 최고경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18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시가총액 8조원에 이르는 정보기술(IT)기업 다음카카오의 최고경영자(CEO)에 임지훈 케이큐브벤처스 대표가 내정됐다. 그는 1980년생으로 36세의 젊은이다. 그의 손에 8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어린 사장 교체가 아닌 업계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세대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0대 대표는 임 내정자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들어 IT 기업들이 30대 CEO 지휘 아래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30대는 어릴때부터 게임과 포털을 접하고 자란 세대로 경영전략과 시대의 트렌드를 감각적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변화가 빠른 게임·소셜네트워크사업 등에서 감각적·본능적인 대처 능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9		1			3		2	
		2						3
8	3				4			
			6		9	4		
1	7		2		5		9	6
		6	1		7			
			4				8	9
7						2		
	2		8			3		4

6			5					4
		4		1		3		5
3	8			7				2
		7		8	1			
	3						2	
			4	2		6		
1				3			5	7
5		3		4		8		
9					2			1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9	4	1	5	6	3	7	2	8
5	6	2	7	1	8	9	4	3
8	3	7	9	2	4	1	6	5
2	5	8	6	3	9	4	1	7
1	7	3	2	4	5	8	9	6
4	9	6	1	8	7	5	3	2
3	1	5	4	7	2	6	8	9
7	8	4	3	9	6	2	5	1
6	2	9	8	1	5	3	7	4

6	1	2	5	9	3	7	8	4
7	9	4	2	1	8	3	6	5
3	8	5	6	7	4	9	1	2
2	6	7	3	8	1	5	4	9
4	3	9	7	6	5	1	2	8
8	5	1	4	2	9	6	7	3
1	4	8	9	3	6	2	5	7
5	2	3	1	4	7	8	9	6
9	7	6	8	5	2	4	3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잦은 사기에 비관적 성향으로 바껴 힘듭니다
참견 자제하고 당분간 소극적 자세가 최선

앵그리심슨 남자 85년 4월 6일 9시

Q 안녕하세요! 저는 꽤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감정에 솔직하고 정에 약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사람한테 뒤통수를 얻어맞거나 빌린 돈을 떼어먹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사람을 못 믿고 정말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11년째 여자 친구 없이 살아왔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휴~.

그리고 저도 압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A 연월일 사주팔자 안에 귀문관살(鬼門關殺)이 있는데 누구나 생년월일시가 있듯이 보편적 각자에게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보다 강하게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착하고 상냥하지만 남의 말에 잘 속고 도발적 성격이 있어 사고 송사에 공연히 휘말리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 뜬구름 잡는 일에도 쉽게 솔깃하니 시종일관 자신의 할 일에 묵묵하기를 바라는데 귀하에게 귀문 살이 다소 강하게 작용하니 이런 저런 일에 참견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등의 일들을 자제하면서 사는 방법이 최선이라 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인데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지금의 현실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따름이지요.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상념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마찬가지인데 신문 사회면으로만 본다면 이 세상은 저주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편에 아름다운 면으로 보면 여전히 세상은 따스하고 행복합니다.

문제는 어느쪽에 액센트를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의 배신감에 괴롭지만 자신의 판단 능력 부족의 결과이기도합니다.

'수경채소'와 같이 담백한 성정에 정이 많으나 처궁에 공망수가 있어 여자를 만나거나 가정을 이루어도 고독할 것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나무'와 같이 일정한 주거를 마련 못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무리수가 발생되는 문제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가 당분간은 최선이라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0일 (음 7월 7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구설수와 언행을 주의하세요. **60년생** 옳지 않은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2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4년생** 이성관계에 신중하세요.



4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욕심은 금물. **61년생** 스스로부터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73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합니다. **8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50년생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2년생** 눈앞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74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86년생** 일이 많고 바쁜 하루입니다.



51년생 현재 추진하는 일에 결과가 있습니다. **63년생** 부부, 이성운이 길하니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75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87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입니다.



52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미루는 게 좋습니다. **64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됩니다. **88년생** 주의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53년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77년생** 일이 뜻대로 안 풀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89년생** 무난하고 평탄한 하루입니다.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55년생 지금은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67년생** 성실해 추진해 온 일에 보람이 있습니다. **79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어려움을 빠져나오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리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되겠습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다투기 보다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3년생** 운이 좋으니 원하던 일을 추진하세요. **95년생** 동료와 협력하세요.

월마트의 교훈



박찬희
한국수력원자력 홍보 자문

최근 언론 속에 비친 롯데그룹 사태를 지켜 보면서 한때 내가 몸담았던 월마트가 생각났다. 특히 월마트의 창업주 샘월튼(1918~1992) 회장은 롯데 그룹의 신격호 회장(1921~) 못지 않은 카리스마와 비전으로 온갖 역경 속에서 미중서부 아칸소주의 작은 소매점 체인을 미국 최대의 유통 업체로 키워냈다.

월마트 역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성장통과 외부 도전에 직면했다. 월마트를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은 개인존중과 최상추구, 고객서비스로 요약되는 3 대 기업 가치와 독특한 기업 문화였다. 월마트 코리아 근무 당시 글로벌 CEO 리 스캇은 "우리는 언제나 예외로 인해 판단 받는다"며 회사가 커질수록 작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전세계 직원들에게 윤리와 투명 경영을 강조했던 것이 생각난다.

리스캇은 샘월튼 회장 생전의 혹독한 후계자 양성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월마트 협력사 직원이었던 그는 입사후 패기와 열정으로 경영진과 사사건건 충돌하다 신뢰를 쌓고 인정을 받기에 이른다. 수많은 월마트 직원들의 희망이자 롤 모델이었던 그는 2000년 CEO 취임후 월마트를 2002년 포춘지 500대 기업 매출액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데 이어 2003년에는 포춘지 선정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위로 만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월마트 성장의 비결을 독특한 기업 문화와 장기적 안목의 후계자 승계 작업에서 찾는다. 일찌감치 후계작업을 시작했던 그의 원칙은 기업 문화와 전통은 혈육이 승계하되 성장과 혁신은 내부 검증을 거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가 암으로 사망하자 월마트에서 잔뼈가 굵은 장남 랍 월튼에 지체없이 회장직이 승계됐다. 20여 년간 성공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 그는 올해 6월 월마트 주주 총회에서 자신의 사위 그렉 페너에게 3대 회장직을 물려준다. 그 역시 월마트에서 15년간 근무한 사람이다. 월마트 창업주 일가의 지분은 1970년 기업 공개 당시 61%에서 40여 년이 지난 현재도 5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월마트의 고유한 기업 문화를 지키며 일관된 성장 정책을 가능케 하겠다는 월튼가의 의지를 보여준다.

기업을 세운 것은 창업주지만 이를 토대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꿈과 열정, 그리고 진정성을 공유한 직원들이라 생각한다. 나는 월마트에서 양질의 다국적 기업 문화를 보고 배웠다. 롯데 역시 세계 시장에서 특유의 기업 문화와 탁월성으로 승부해야 할것이다. 위기는 또다른 기회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오늘의 롯데를 만들어낸 내부 역량에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고 자랑스러웠던 기업 월마트 코리아는 한국을 떠났지만, 이들이 내게 남긴 교훈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유효하다.

또다시 일체형 선택한 삼성전자 '필연적 선택?'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가 20일 국내 판매에 돌입했다. 갤럭시노트5 출고가가 미국보다 내려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S6 엣지+의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탈착형이 아닌 일체형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실망하는 분위기다. 올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S6 시리즈의 반응을 보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전략을 펼쳤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시리즈의 흥행 실패 원인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외치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대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은 말그대로 '전망'에만 그쳤다.

당시 휴대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흥행 실패의 원인으로 일체형 디자인을 지목했다. 대리점 관계자들도 "아이폰 사용자들이 삼성전자 제품으로 이탈한 이유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4년 애플 아이폰의 일체형 배터리를 비꼬는 영상을 제작하며 조롱했던 삼성전자가 불과 1년여 만에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여 각종 커뮤니티에서 웃음거리로 전락된 모습이다.

하지만 일체형을 고집하는 삼성전자의 마음도 일면 이해된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의 한 고위관계자는 갤럭시S5의 실패의 원인으로 금속 케이스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갤럭시S5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적용한 반면 애플은 아이폰5부터 알루미늄 케이스를 사용해 인기를 끌었다는 것.

이후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 금속가공을 위해 대당 1억~2억원에 호가하는 CNC밀링머신을 수천대 들여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예상대로 갤럭시S6부터 알루미늄 케이스를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출시한 신제품의 반응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일체형을 고집하는 것은 수천억원을 투자한 CNC 밀링머신을 정리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체형보다 배터리 교체를 선호한 갤럭시 사용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인 사

◇현대차그룹 △부사장급 전보 ▲현대기아차 중국전략담당 담도굉 ▲북경현대기차 총경리 이병호 ▲동풍열달기아 총경리 김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승진 ▲청렴총괄과 박주미
◇충북도 △4급 승진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직위 승진) 임헌배 △4급 전보 ▲공보관 김선호 ▲진천군 전출(부군수 요원) 전원건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경기도교육청(초등) △교육장 ▲안양교육장 한구용 ▲광명교육장 박상길 ▲구리남양주교육장 방호석 ▲가평교육장 최경숙 △직속기관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이상실 ▲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 △본청 과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교육지원청 국장 ▲수원교수학습국장 김선미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과학교육원 융합과학교육부장 송민영 △장학관 신규임용 ▲학교정책과 양미자 ▲특수교육과 장은주 ▲광주하남 교수학습지원과 김광옥 ▲고양 초등교육지원과 정경동 ▲파주 교수학습지원과 노병섭
◇경기도교육청(중등) △교육장 ▲용인교육장 최종선 ▲광주하남교육장 안락규 ▲연천교육장 박용섭 △직속기관장 ▲학생교육원장 양운택 △본청 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진로지원과장 이태헌 △직속기관 부장 ▲교육연수원 중등교육연수부장 곽원규 ▲과학교육원 과학기획진흥부장 강재식 ▲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부장 김현숙 △장학관 신규임용 ▲학교정책과 이규성 ▲체육건강교육과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 황교선 ▲진로지원과 정만교 ▲특성화교육과 임민택 ▲고양 중등교육지원과 박은영 ▲김포 교수학습지원과 유종만 ▲포천 교수학습지원과 김종표

社說

재벌 사내유보금은 성역인가

청년실업 등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헐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18일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돈이 재벌 곳간에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많은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도 19일 "법인세 인하 등으로 불어난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710조원이 고용창출과 신규투자로 이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모아보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슷한 주장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기업인 사면과 700조 원에 달하는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예시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대 재벌 대기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렇듯 사내유보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데는 법인세 인상이 유력한 방안이지만, 정부는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와 사내유보금을 성역처럼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재벌 사내유보금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재벌 사내유보금은 늘어나기만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살리기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노동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더욱 의심스럽다.

사내유보금을 무작정 놔두는 것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내유보금과 법인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모기퇴치제, 사람에게도 해롭다

소비자 119

소비자원 제품 조사 결과 해외 규제 성분 표시 안돼

여름철 모기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퇴치제에 일부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제품의 성분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기퇴치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령제한 표시가 기재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모기퇴치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 옷 등에 뿌리거나 발라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최근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모기퇴치제에 포함된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정향유, 이카리딘, 시트로넬라오일 등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DEET를 제외한 정향유, 이카리딘, 시트로넬라오일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정향유와 시트로넬라 오일은 식물성 정유이지만 피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고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함유하고 있다. 이카리딘은 DEET에 비해서는 안전하지만 피부 또는 안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시트로넬라 오일은 유럽연합(EU)·캐나다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검토 중이고, 정향유는 우리나라에서만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모기퇴치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모기퇴치제 유효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sj0215@

kenny story

계약금 980만원 투자 후, 잔금 918만원 내면 '끝!'

축 GRAND OPEN 축

임대보증금

447만원

715만원

1년 수익금 선지급

실 투자금 1,898만원이면 통장으로 매 월 60만원 씩!!

3채 5,700만원!
(매월 180만원 지급)

10년 임대차 계약서 발행

Hotel Kenny Story
임대차 계약서



분양 중인 호텔 대비 **최대 1억원 저렴!**

상기 이미지는 건축법 변경으로 인한(사선제한폐지) 설계변경을 적용한 것이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 될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하겠습니다.

예금 1% 초저금리시대 고수익 분양형 호텔이 정답

분양가	8,945만원
보증금	**447만원**
실투자금	**1,898만원**
중도금대출	5,883만원
대출이자	205만원
연수익	715만원
연순수익	509만원
월순수익	42만원
수익률	**26.8%**

위 수익률표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며 중도금 무이자 50%대출, 잔금대출 10%(개인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시 수익률입니다.

- 연 7일 무료숙박
- 수익률 26%
- 가동률 90% 예상
- 지가상승 1위 서귀포 최고입지
- 1년 수익금 715만원 선지급

- 수익금 선지급은 개인 선택 사항, 금액은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계약자 선착순 정관장 홍삼세트 증정

방문시 선착순 사은품 증정

삼일대로 | 돈화문로
호텔 케니스토리 VIP홍보관
종로4가 사거리 | 기업은행 | 보령약국 | 1호선 종로5가역 (12번 출구)
광장시장

모델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0번지 (종로 5가역 12번출구, 광장시장 건너편)

신청금 100만원 선착순 호실 배정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주)
입금계좌 : 351-0776-2742-43(농협)
미 계약시 전액 환불 됩니다.

문의전화 1899-5663

호텔개요 ·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70-9 외 4필지 · **용도** : 숙박시설 근린 상업시설 · **건축규모** : 지하2층 ~ 지상10층 · **객실수** : 305실

시행사 비디파트너스 | 운영사 벨류버츄어서클 | 시공사 석장건설 | 자금관리 KAIT 한국자산신탁